

기본연구과제 2003-02

#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에 관한 연구

박 철 희

# 발 간 사

21세기 문화·지식·정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산에는 과거 일본에 도자 기술을 전파한 이삼평과 계룡산 도요지가 있습니다. 계룡산 도요지는 이천,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요지 중의 하나로서, 철화분청 또는 계룡산 분청으로 그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젊은 도예가들이 모여 그 전통을 계승해 나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민선3기 도정운영 프로그램의 산업·관광 진흥분야 시책의 하나로 계룡산 지역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철화 분청사기를 소재로 하여 도예촌 조성을 구상중이며, 본 연구는 충청남도와의 협의 하에 2004년도에 실시예정인 「철화 분청사기 도예타운 건설」 기본계획에 필요한 선행연구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에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진하여 주신 박철휘 책임연구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연구과정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계룡산 도예촌 주민 여러분과 충청남도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충남발전연구원장  
오 제 직

## 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	6
제2장 국내외 도예촌 조성 현황 .....	8
제1절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특징 .....	8
제2절 국내외 도예촌 조성 현황 .....	10
제3절 소결 .....	24
제3장 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	27
제1절 일반환경특성 .....	27
제2절 역사적 배경 및 시설일반 현황 .....	34
제3절 설문조사 .....	40
제4절 소결 .....	44
제4장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 방안 .....	47
제1절 기본방향 .....	47
제2절 도예촌 조성 기본구상 .....	48
제3절 주변자원 연계방안 .....	62
제4절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방안 .....	65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69
제1절 결론 .....	69
제2절 정책건의 .....	72
□ 참고문헌 .....	73
부록 -1 도자역사 및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고찰 .....	75

## 표 목 차

표-1 이천 도자기 업체 현황 .....	11
표-2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수 .....	11
표-3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 현황 .....	11
표-4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	11
표-5 도자기 생산업체 지역별 분포현황 .....	11
표-6 이천 도자기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현황 .....	13
표-7 도자기 생산업체 해외수출 현황 .....	13
표-8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	14
표-9 강진 도자기 업체 현황 .....	16
표-10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자수 .....	16
표-11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현황 .....	16
표-12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	16
표-13 도자기 생산업체 지역별 분포현황 .....	16
표-14 강진 도자기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현황 .....	17
표-15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	17
표-16 표고현황 .....	28
표-17 경사분석 .....	29
표-18 향분포 현황 .....	30
표-19 인구현황 .....	32
표-20 상·하신리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32
표-21 요지 분포현황 .....	37
표-22 도자기 생산업체 현황 .....	38
표-23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자수 .....	38
표-24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 현황 .....	39

표-25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	39
표-26 도자기 생산업체 종업원수별 현황 .....	39
표-27 도자기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현황 .....	39
표-28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	39
표-29 경사, 향, 표고 등을 고려한 가용지 분석 .....	45
표-30 계룡산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산정 .....	54
표-31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 (예시) .....	57
표-32 공주시 관광코스 .....	62
표-33 대전광역시 관광코스 .....	63
표-34 대전광역시 요일별 시티투어코스 .....	63
표-35 유성구 테마별 관광코스 .....	63
표-36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도 .....	66
표-37 계룡산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산정 .....	70
표-38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 (예시) .....	70

## 그 립 목 차

그림-1 분청사기 철화어문병 .....	8
그림-2 철화당초문 항아리 .....	8
그림-3 이천도예촌 현황도 .....	12
그림-4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도 .....	15
그림-5 경주 민속 공예촌 전경 .....	18
그림-6 공예촌 입구 모습 .....	18
그림-7 지례 예술촌 전경 .....	19
그림-8 아리타 백토광, 시가지, 건축물 모습 .....	21
그림-9 활력있는 가로모습 .....	22
그림-10 오카와치야미요지지구 가로모습 .....	22
그림-11 상신리 당간지주 .....	33
그림-12 구룡사 발굴모습 .....	33
그림-13 계룡산지역 요지 위치도 .....	36
그림-14 기본 구상도 .....	59
그림-15 교통동선 구상도 .....	60
그림-16 녹지체계 구상도 .....	61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21세기는 문화·지식·정보의 시대로,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산업은 특성상 관련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창달, 정체성 확보, 주민 자긍심 고취 등 파급효과가 다양하다.
- 특히,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시대의 급속한 전개는 지역간 경쟁 및 개발을 촉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하에, 충청남도에서는 민선 3기 도정운영 프로그램(2002.10)의 산업·관광 진흥분야 시책의 하나로 계룡산 지역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철화분청사기를 소재로 하여 도예촌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본 연구원은 충청남도와의 협의 하에 2004년도에 실시예정인 「철화 분청사기 도예타운 건설」 기본계획·설계에 필요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철화 분청사기 도예타운 건설」 사업의 개요

#### 가. 추진 방침

-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살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 인근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과 연계 관광코스화 하되, 전시판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조성

#### 나. 추진 계획

- 2004년 : 사업규모, 적지선정
- 2004~2005년 : 부지매입,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조성
- 2006~2007년 : 도예촌 시설물 조성 및 민자유치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계룡산 지역의 도예 역사 및 특성을 검토하고, 지역현황 및 잠재력 분석 하에 바람직한 도예촌 조성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도예문화의 계승과 전통문화의 창달에 있다.

### ● 계룡산 지역 도자문화의 특성과 국내외 도예촌 사례 검토

- 계룡산 도요지는 이천,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도요지로서, 철화 분청 또는 계룡산 분청으로서 그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분청사기 중 철화를 중심으로 철화 분청사기의 역사, 특징, 제작과정 및 재료 등을 살펴보고 문화자원으로서의 개발·활용 잠재력을 검토한다.
- 이러한 잠재력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조성된 도예촌의 현황조사하여 계룡산 도예촌의 개발방향을 도출한다.

### ● 계룡산 지역의 입지적 여건분석을 통한 도예촌 조성의 기본방향 검토

- 계룡산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도요자원을 검토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입지적 여건을 검토함으로서 바람직한 도예촌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조성 기본방향에서 제시할 내용으로는 물리·환경 분석을 통한 도예촌 조성의 공간적 범위, 수요예측을 통한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추진체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 및 방식 등이다.

### ● 지역의 기반시설정비, 정주기반구축 및 관광자원화 추진

- 도자기는 생활에 쓰이는 기구로서 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작품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산업 및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정비, 정주기반구축, 관광자원화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 특히, 문화예술로서의 개발잠재력이 크며, 주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유성온천 및 expo과학공원 등과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한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계룡산 도예촌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및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 시간적 범위

-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자료, 사례를 수집하고 개발방향을 모색한다.

#### ● 공간적 범위

- 계룡산 지역에는 여러 도요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도예가들이 거주하며 도예 연구, 재현, 교육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권 반포면 상신리, 하신리, 학봉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 ● 내용적 범위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예촌 현황분석, 대상지역의 물리·인문적 환경의 검토, 이용자 수요예측, 도입시설 검토, 사업추진주체 및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 연구를 위한 현황조사에서, 국내사례는 대상지를 방문하여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고 국외사례인 경우 인터넷, 전화 인터뷰 및 관련문헌을 통하여 조사한다.
- 대상지와 관련된 현황분석은 현지답사, 사진촬영 및 수치지도를 활용한 GIS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및 방문객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도출한다.
- 개발사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현재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원화되어 있는 주관부처사업을 검토한다.

##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 1. 도예

- 도예란, 도자예술의 줄임말로 “흙과 불의 예술”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흙을 재료로 하여 불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의 형태를 陶瓷藝術이라 하며,
- 학술적으로는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소성하여 완성하는 유형의 예술품”을 말한다.
- 이러한 도자예술은 현대에 이르러, 단순한 예술이 아닌 종합미술(Composite Arts)<sup>1)</sup>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현대도자예술의 범위가 공예성, 회화성, 조형성 그리고 건축이나 환경 미술까지, 더 나아가서는 행위 미술의 범주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2. 도예촌

-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 예술촌의 줄임말로써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이나 작가들이 모여서 형성한 촌으로서 창작 활동, 교류,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말한다.<sup>2)</sup>
- 대표적 도예촌으로서,<sup>3)</sup>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임동 도예촌 및 수광리 도예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도예촌들의 대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sup>4)</sup>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로를 중심으로 상점가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

---

1) 현대의 도자예술은 이미 작품속에 회화성과 조형성을 중시하는 도자조각 또는 도자회화라고 불릴 만큼 “종합미술”의 성격이 강하다.

2) 오늘날까지 각 지방에 “사기장골”, “사룻골”, “새장골”, “사기소”, “가마골” 등으로 불려지는 골짜기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옛날 도요지로 해석해도 타당하다.

3) 외국의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에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여 큰 도시를 이루어 도시 전체가 도자기 산업으로 이미지가 강한 곳도 있다.

4)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유명한 도요지를 중심으로 도자기정원이나 도예촌이 구상 중에 있다.

### 3. 분청사기(粉靑沙器)<sup>5)</sup>

- 분청사기란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써 1930년대 분장회청사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sup>6)</sup> 분청사기<sup>7)</sup>는 태토(바탕흙)로 형태를 만든 후 백토를 입히고 이 백토면에 그리거나 새기거나 굽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양을 나타낸 다음 유약을 입히는 방법으로 제작되며, 그 제작시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조 16세기 중엽까지다.

#### ■ 분청사기의 종류

- 분청사기는 그 제작기법에 따라, 분청상감, 분청인화, 분청조화, 분청박지, 철화분청, 귀얄분청, 담금분청 등 7가지로<sup>8)</sup> 나눌 수 있다.

#### ■ 분청사기의 특징

- 청자가 왕족과 귀족을 위한 장식적, 귀족적,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한데 비하여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며 소박하고 활달한 서민적 취향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으며, 투박한 느낌을 주는 질감, 대담한 형태와 문양구도, 추상의 세계를 향한 장인의 의지 표현 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분청사기<sup>9)</sup>의 특징이다.

5) <http://www.ejojagi.co.kr> 인용

6) 분청사기는 제작되던 당시의 이름이 아니어서 옛 문헌에서 분청사기와 같은 도자기를 무엇이라고 지칭하였는지 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7) 고려말 정치경제사회가 혼란하여지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자제작기술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소규모 도기제작을 하었는데 이것이 분청사기 제작의 시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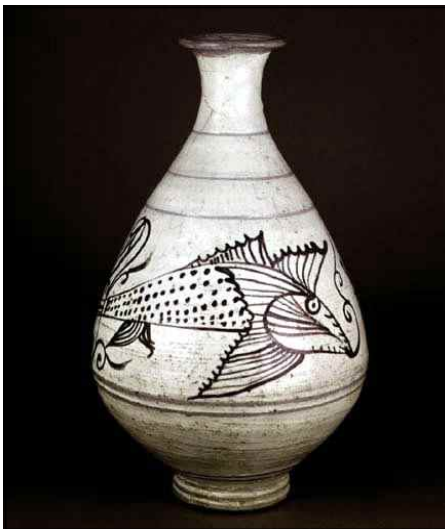
8) ① 분청상감(粉靑象嵌) :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을 계승한 것 (초기는 주로 버들, 물고기 등의 소재가 선(線)상감으로 시문되었다 면(面)상감으로 발전 시문되었다.) ② 분청인화 : 도장과 같은 시문구로 문양을 찍어내는 방법 (인화분청의 소재로는 작은 국화문이 꾸준히 시문되었으며, 다른 종류의 분청에 비해 황실용과 관청용이 많다) ③ 분청조화 :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문양을 선각한 것 ④ 분청박지 : 조화문에서 시문과정을 한단계 더 거친 것으로 바탕의 백토를 굽어내어 문양만 백토로 남게 한 기법 (조화 박지 분청은 대부분 전라도 지방기마였다.) ⑤ 철화분청 : 백토를 입힌 후 철사안료로 문양을 그린 것 (철화분청은 분청사기의 맨 마지막 시기에 유행하였으며 제작수법이 다소 거칠어 굽바닥에 끓는 모래받침 자욱이 있는 예들이 많다. 철화분청가마는 충남공주계룡산 기슭에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계룡산 분청이라고도 한다) ⑥ 귀얄분청 : 풀을 바를 때 사용하는 귀얄이라는 도구로 백토를 입혀 귀얄자욱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기법 ⑦ 담금분청(분장분청) : 백토물에 그릇표면을 담갔다가 꺼내어 구워내는 방식 (귀얄문 및 분장문은 15세기말에서 16세기초까지 유행하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조화, 박지문, 철화문 등의 바탕문양이 되었다.)

9) 이러한 특징의 분청사기는 1467~1468년경 경기도 광주에 사옹원이라는 관청의 분원이 설립된 후 백자생산이 증가하면서 16세기 중엽부터는 소멸하게 된다.

## 제2장 국내외 도예촌 조성 현황

### 제1절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특징

- 계룡산<sup>1)</sup> 분청사기는 1487년~1536년 약 130년 간 제작되었던 분청사기로서 철화기법을 이용하여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일명 ‘계룡산 분청사기’<sup>2)</sup>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 재료상 특징으로는 다른 지방의 소성물과 쉽게 구별이 될 만큼 태토가 거칠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성 후 투명한 유약밑에서 암자색으로 소지가 비친다.<sup>3)</sup>
- 대부분 소지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암록색, 암갈색, 회흑색, 흑색, 검은자색 등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 분청사기 철화어문병

자료 <http://museum.go.kr>



[그림-2]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항아리

자료 <http://www.gnedu.net>

- 1) 계룡산은 「암봉의 정상에 닭 벼슬 같기도 하고 용의 모습과 같기도 하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에는 이태조가 즉위하여 처음으로 도읍을 정하려고 했던 곳이 계룡산의 남쪽인 지금의 신도안으로 왕업 창생의 도읍을 꿈꾸던 터이다.
- 2) 계룡산지역에는 철화기법의 분청사기와 더불어 상감, 인화, 조화, 귀얄, 덩병 등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수습되고 있다.
- 3) 이재황,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재료 연구 - 주변재료의 채굴과 실험을 중심으로 -, 도서출판 동해물과 백두산이, p9

- 분청사기의 표면은 거칠고 철분이 많아 검게 보이는 태토를 감추기 위해 막 걸리색 분장토를 사용하고 있으나, 분장토가 칠하여지지 않은 부분은 귀얄문과 철화문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개성과 미(美) 감각, 지역인의 심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예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 형태상 특징으로는 둔한 기형을 가지고 있으며, 문양상으로는 반쯤 칠한 막 걸리색 귀얄자국과 자유스럽고 힘찬 필력<sup>4)</sup>의 철화문이 있으며 문양은 선명하고 굵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해학적인 문양과 생략의 효과로 당시대의 독특한 개성<sup>5)</sup>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러한 재료상, 형태상, 문양상의 특징은 우리민족의 예술적 생기와 익살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도기의 제작에 있어 문양의 주제나 표현에 어떠한 제약이나 비판을 의식하지 않고 대담하게 표현한 결과로 추측된다.
- 현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에는 그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가마<sup>6)</sup>터가 사적 33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sup>7)</sup>
-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sup>8)</sup>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사라지나, 조선 중기 이후 철화 백자로 나타나게 된다.

4) 특히, 공주 학봉리에서는 도화서 화원의 필치와는 다른 능숙하고 세련된 또 다른 필력을 보이고 있다.

5)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요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화서 소속의 화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가마에서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자체내에서 해결했을 것으로 본다.

6) 학봉리 모든 가마는 내화갑을 사용하지 않고 기물의 바닥에 굵은 모래를 깔아 포개어 소성한 것이 많으며 가마벽의 녹은 상태로 보아 대략 1230℃ 이상 소성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7) 학봉리의 가마 칸은 13개이며 지역의 풍향에 따라 가마의 봉통이 구부러져 있다. 가마의 길이가 길 경우 대부분 가마의 제4칸까지는 봉통의 소성에서 생기는 예열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원소성이 잘 이루어지나 제5칸 이상은 예열의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칸 불에 의해 산화소성이나 중성소성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8)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와 같은 종류가 공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제작되었을 법한데 아직까지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만큼 개성있는 예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혹자는 동학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공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술집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하나 어떤 것도 입증된 것이 없다.

## 제2절 국내외 도예촌 조성 현황

- 현황조사는 국내·국외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국내는 이천 및 강진 도예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밖에 전통과 역사를 소재로 조성된 경주 민속 공예촌, 안동 지례 예술촌을 조사하였다. 국외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아리따시, 이마리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밖에 카펜 스타인 도예촌, 하버프론트 공예공방촌을 살펴보았다.

### 1. 국내사례

#### 1) 이천 도예촌

##### (1) 개요

- 이천 도예촌은 국내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2003년 1월 현재 도요 업체수는 총466개로서 이중 도자기 생산업체는 336개, 전시판매장 111개, 도자기 관련 업체 19개소가 있다.<sup>9)</sup>
- 이천 도예산업의 성장은 8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생산시설의 분업화, 시설 및 기계의 개량화와 작업관리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재래식 가마로부터 현대식 대형 가마로의 전환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현재, 이천 도예촌의 대표적인 전통 도예촌으로는 사음동 도예촌과 신둔면 수광리 도예촌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도예촌이 형성된 배경에는 원적산을 끼고 광주군 산간지대와 연결되어 있어 화목의 원료인 소나무를 구하기가 쉬웠고 도자기의 원료인 점토나 사토 등이 쉽게 주변에서 조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광리 도예촌이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막강한 구매력에도 큰 몫을 하였으며<sup>10)</sup>, 2001년에는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9) 해방 직후 3-4곳에 불과하던 도자기 업체가 6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80년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10) 국내에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60~70년대에는 이천도자기의 전통과 우수성을 인정해준 일인들이 중요한 고객이었고 일반시장이 거의 유일한 소비창구가 되었음

- 이천군 신둔면 지역에는 세계도자센터, 시립박물관, 설봉공원, 해강 도자기 미술관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해강 도자기 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통하여 이곳을 도자기 문화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하고 자료 제공과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1] 이천 도자기 업체 현황 (2003.1월 현재)

구 분	업 체 수 (개 소)			전년대비
합 계	도자기생산업체	전시판매장	도자기관련업체	
466	336 (감6) (72.1%)	111 (증4) (23.8%)	19 (4.1%)	감2 (468)

※ 도자기 관련업체: 소지 7, 유약 2, 박스 6, 석고틀 3, 전사 1

[표-2]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자수

계	남	여	비고
996	505 (50.7%)	491 (49.3%)	2.96명/업체별

※ 최다 종사자 업체 : 광주요 (50명)

[표-3]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 현황

지역별 계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비고
336	82 (24.4%)	254 (75.6%)	

[표-4]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계	자산규모에 따른 업체분포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36	255 (75.9%)	72 (21.4%)	9 (2.7%)

[표-5] 도자기 생산업체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계	장호원	부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사음동	기타
336	4 (1.2%)	3 (0.9%)	242 (72%)	4 (1.2%)	2 (0.6%)	15 (4.5%)	5 (1.5%)	11 (3.3%)	40 (11.9%)	10 (2.9%)

※ 기타 : 설성, 울, 증일, 관고, 송정



[그림-3] 이촌도에촌 현황도





## (2) 관리 및 운영

- 이천 도예촌에 있는 도예업체 자산규모는 총 28,103백만원으로 업체별 평균 84백만원이며, 연간 매출액 규모는 18,412백만원으로, 업체별 평균매출액은 55백만원이며, 이중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의 업체가 191개(전체의 56.8%)로서 규모의 영세성을 띠고 있다.
- 도예업체 해외 수출 현황은 총 21개업체로서 516백만원이며,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주 수출품목은 다기, 청자, 생활자기 등이며, 총 도예업체 수에 비하여 수출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 기본적으로 이천도예촌은 개인 도예인들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과별로 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내 지역경제과에 도예계를 설치하여 expo기획 및 도예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도자기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는 일부 도예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도·소매 상인에게 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판매 및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천 민속도자기 사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현재, 협동조합의 회원수는 생산업체는 336개 중 250여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도자기 주문 및 판매 대행, 홍보,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6] 이천 도자기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현황

계	연간 총매출액	연간 매출액에 따른 업체분포			
		2천만원이하	2천만원 ~1억원이하	1억원 ~3억원이하	3억원이상
336	18,412백만원	191 (56.9%)	114 (33.9%)	26 (7.7%)	5 (1.5%)

[표-7] 도자기 생산업체 해외수출 현황

수출업체수	수출액	수출국	수출품목
21개 업체 (총업체수 대비 6.3%)	515,520천원 (업체평균 24,546천원)	일본, 미국, 영국	다기, 청자, 생활자기

[표-8]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전통가마 보유업체	도예교실 운영업체
29	27

### (3) 문제 및 시사점

- 이천 도예촌은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실질적인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이천 지역의 문제는 우리나라 도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이천지역은 과거에 비해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진전되었으나 전통장 인정신을 고집하는 작품 위주의 공급은 수요층을 일부계층에 국한시킴으로서 도예산업의 발전에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으며, 상품성 위주의 공급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술력 저하로 인해 경쟁 열위에 있다.
- 국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국제적으로는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으며, 물리·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도요지의 육성이 필요하며, 기존의 이천 민속도자기 사업협동조합을 더욱 활성화하여 판매 및 마케팅 능력을 배향 할 필요가 있다.
- 물리·환경적인 측면으로는 expo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비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바 상업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상점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비하고, 도예촌다운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도요간의 시너지 효과 등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 2) 강진 도예촌

### (1) 개요

- 강진도예촌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세미술했을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생산지이다.
- 강진에서 유난히 청자문화가 발달했던 것은 통일신라 후기 해상교통의 발달로 중국의 청자제작 기술의 도입이 빨랐고, 기후, 흙, 연료, 해운 등 제반여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 이 지역에는 9세기~14세기로 추정되는 총 188기의 청가가마터가 있으며, 대구면의 청자가마터는 제작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에 분포하고 있다.
- 그러나, 고려 말부터 청자기법이 쇠퇴한 후 600여년 동안 청자요지가 묻혀버린 채 맥이 단절되었다. 그러다 1977년 사단법인 고려청자 재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옛 도공들의 기법을 연구하고 다시 익히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재현에 성공하였다.

[그림-1] 대구 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도



- 1986년에는 강진군 산하에 청자사업소가 설치되어, 매년 2만여 점의 작품들을 구워내고 있다. 또한 97년 청자사업소 내에 테마박물관인 강진청자 자료 박물관을 개관하여 청자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표-9] 강진 도자기 업체 현황 (2003.6월 현재)

구 분	업 체 수 (개 소)			비 고
합 계	도자기생산업체	전시판매장	도자기관련업체	
24	12 (50.0%)	11 (45.8%)	1 (4.2%)	

[표-10]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자수

계	남	여	비고
77명	50명 (65%)	27명 (35%)	

※ 청자사업소 (강진군 사업소) : 34명

[표-11]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 현황

지역별 계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비고
12	11	1 (청자사업소)	청자사업소는 강진군 사업소임

[표-12]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계	자산규모에 따른 업체분포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2	2	8	2

※ 청자사업소 및 도자기업체 총자산 규모 : 12,490백만원

[표-13] 도자기 생산업체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계	사당(청자촌)	미산	상저	중저	도암굴동
12	8 (66.8%)	1 (8.3%)	1 (8.3%)	1 (8.3%)	1 (8.3%)

## (2) 관리 및 운영

- 강진 도예촌은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소와 민간도요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고려청자재현, 도예교실 및 박물관운영 그리고 사적지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 사적지(구요지)는 사적 제 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매년 8월 중순 여름철 휴가와 방학기간 동안 강진 청자문화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도예촌 방문객은 연간 15~20만명으로 추산되며 가족단위방문객 보다는 단체 방문객이 많고, 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일반인은 20~30만원대의 제품, 학생들은 기념품위주의 5,000~7,000원 사이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도요지에서는 개인요를 중심으로 체험장 운영 및 제작·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자기의 품질 및 마케팅 능력에 따라 수익의 편차가 심하며, 수요의 한계로 판로에 전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강진군에서는 대구면 사당리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여 도예문화원, 중앙광장, 주제공원, 놀이마당,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전통문화보존·계승 및 관광객 유치에 계획하고 있다.

[표-14] 강진 도자기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현황

계	연간 총매출액	연간 매출액에 따른 업체분포			
		2천만원이하	2천만원 ~1억원이하	1억원 ~3억원이하	3억원이상
12	1,440백만원	1 (8.3%)	5 (41.6%)	5 (41.6%)	1 (8.3%)

[표-15]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전통가마 보유업체 (가마수량)	도예교실 운영업체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
4개 업체 (5기)	1개 업체 (청자사업소)	4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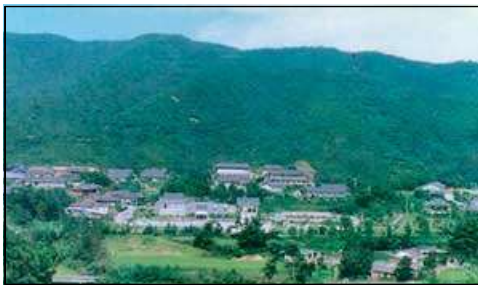
### (3) 문제 및 시사점

- 강진 도예촌은 이천·광주·여주지역 다음의 고려청자문화의 중심지역이며, 고려청자라는 독특한 청자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반면, 경기도 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 및 수요시장, 생산, 판매, 홍보 등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약 180억원을 투자하여, 테마형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도요관광지로 육성하고 있다.
-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분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려 확실한 주제를 가진 도예촌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경주 민속 공예촌

### (1) 개요

- 경주 민속공예촌은 전통 민속 공예품의 진흥과 육성 및 관광 명소화라는 정부 시책과 신라공예기술의 보존·개발을 목표로 경주시 하동 201번지 토암산 기슭에 1983년 8월부터 1986년 3월까지, 2년 7개월 걸쳐 조성<sup>11)</sup>되었다.
- 이곳에는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250여평 규모의 현대식 종합전시장, 신라 금관, 불상, 유기공예, 청자, 백자, 토기, 토제 인형, 목공예와 보석공예 등을 재래식으로 생산하는 과정, 석굴암의 모형 등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신라역사과학관도 설치되어 있다.



[그림-5] 경주 민속 공예촌 전경



[그림-3] 공예촌 입구 모습

11) 2만여평의 택지에 건물 약 2,837평으로 조성된 경주 민속공예촌은 우리 조상의 얼과 멋과 숨씨가 깃든 전통공예품을 옛 모습대로 재현시켜 민속공예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찬란했던 5천년 역사의 전통과 예술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경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공예인들을 한 곳에 모은 한국적 촌락 형태의 민속공예품단지로 조성되었다.

## (2) 관리 및 운영

- 공예촌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경주시의 행정적인 지원과 중소기업 진흥 공단, 국민은행 등의 지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예품 생산업체를 각 공예분야별로 유치하여 조성하였다. 입주업체는 금속 3개, 토기 2개, 도자기 4개, 목공예 2개, 보석 3개, 자수 1개, 한복 1개, 문화재모조 1개, 석공예 1개, 정각 1개의 생산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 (3) 문제 및 시사점

- 연간 33억원(국내에서 20억을 수출을 5억, 납품 및 공사에 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1994. 8)는 2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예품 중에 토기를 제외한 품목은 제작과정을 소개가 없으며, 공방을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가격 또한 비싼 편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 4) 안동 지레 예술촌

### (1) 개요

- 지레 예술촌은 안동 임하댐의 완공으로 300년간 거주해 오던 마을이 수몰되게 됨에 따라, 지방문화재의 보존에 뚜렷한 묘책이 없던 바 마을의 문화재급 건물을 한곳에 이전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다.



[그림-3] 지레 예술촌 전경

- 예술촌은 산길을 따라 30분 정도에 위치한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 769번지에 조성되었으며, 시설로는 1663년 조선 숙종 때 대사성을 지낸 지촌 김방걸 선생의 종택 10동 125칸의 큰 가옥에 17개의 방이 들어섰으며 1990년에는 서당 종택 제청 등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 “예술촌”의 작업실은 18개로 18명의 예술인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예술인이 아닌 일반단체가 워크샵이나 세미나, 발표회를 가질 경우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 (2) 관리 및 운영

- 예술촌은 현재 촌장 김원길씨에 의해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5,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다.
- 예술촌의 주공간이용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각종 학술회의,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술회의는 한달에 5~6회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홍보를 위한 internet home page 구축 및 언론에도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다.
- 일반인의 숙박비는 방의 크기에 따라 20,000원~50,000원을 받고 있으며, 창작 예술인은 겨울(12, 1, 2월)동안에 2박3일간(토요일제외)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 (3) 문제 및 시사점

- 지레 예술촌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예술촌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과 전통공간에 대한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 지레 예술촌의 조성 근본취지가 문화재의 보존, 예술인의 창작 및 전통체험 공간 조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정도 목적은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한 예술인 활동공간으로의 이용 미약으로 학술회의 공간 및 민박시설로의 운영과, 체계적인 주변경관 및 부대 시설의 미흡은 예술촌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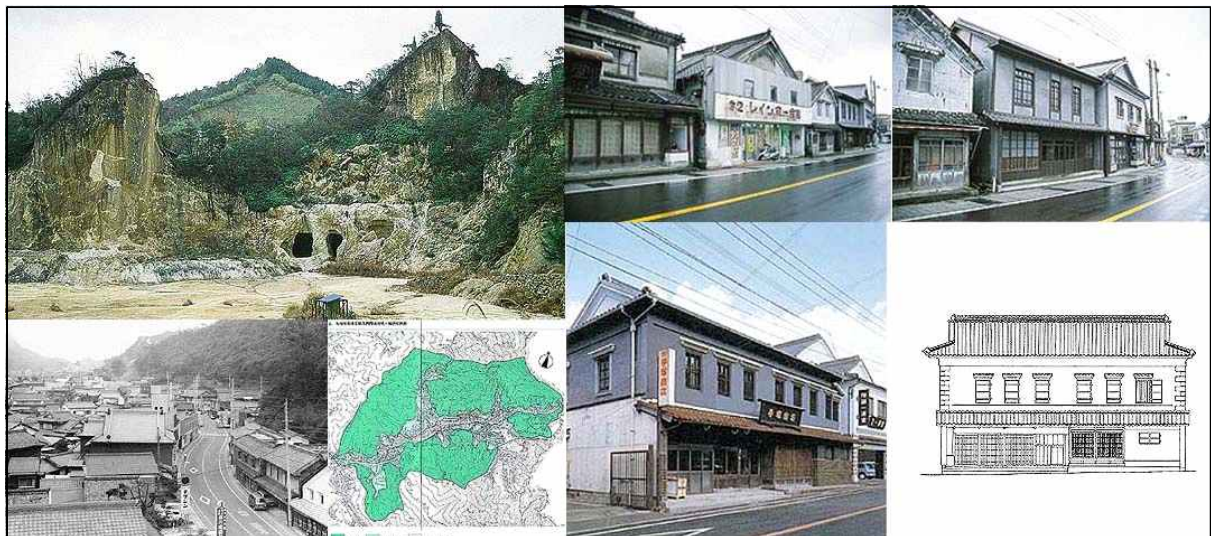


## 2. 국외사례

### 1) 일본 아리따 도예촌

- 아리따 도예촌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직후 일본으로 붙잡혀간 계룡산 이삼평공을 비롯한 조선의 도공에 의해 형성된 촌이다.
- 아리따시는 일본 큐우슈우 지방 서남단에 위치하여 인구 14,000명, 면적 27.09 km<sup>2</sup>의 도시로서 도예 업체수는 215개소에 인구의 90%이상이 도예업<sup>12)</sup>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도자기 수출액은 2억 달러<sup>13)</sup>에 이른다.
- 요업대학과 함께 도자공방, 도자기 전시장과 매장<sup>14)</sup>이 많이 있다. 이곳의 공방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들은 축제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판매되고 있고 이 축제기간 중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 주요 축제로는 도조 이삼평<sup>15)</sup>의 업적을 기리는 도조제가 아리따 도자기 제조 300주년을 기념하여 1916년부터 거행되고 있으며, 매년 5월에 아리따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림-8] 아리따 백토광, 시가지, 건축물 모습



12) <http://www.icheon.go.kr> 참조

13) 한국도자기산업의 4배 규모이다.

14) [http://www.denkmalpflege-hessen.de/LFDH4\\_Japan/Arita](http://www.denkmalpflege-hessen.de/LFDH4_Japan/Arita) 이미지 참조

15) 지난 1990년에는 계룡산 박정자에도 이삼평의 기념비가 한·일양국 관계자의 노력에 의하여 세워진바 있다.

## 2) 일본 이마리 도예촌

- 이마리는 일본 규슈[九州] 사가현[佐賀縣] 서부에 있는 도시로서 면적은 254.99km<sup>2</sup>, 인구는 5만 9,883명(2002)이다.<sup>16)</sup>
- 사가 현 서쪽의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앉은 이마리 만을 끼고 발달한 이마리는 ‘월드 이마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도자기<sup>17)</sup> 마을이다.
- 오카와치야미에는 1675년 어용요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지금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도자기 굽는 곳이 많이 남아있다.
- 공원에는 고려인의 묘, 도공의 비, 이마리 아리따요 전통요업회관이 있고, 계곡의 물이 흐르는 마을 하천은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 도자기는 아리따와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아리다는 은은함과 순수함이 풍기며, 이마리는 순백과 빗살무늬 모양에 칼라가 채식된 화려함이 특색이었다.



[그림-9] 활력있는 가로모습



[그림-10] 오카와치야미요지지구 가로모습

16)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백과사전 참조

17) 일본 자기는 17세기 초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 아리타 지방에서 자기를 제작한 이후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었다. 초기에는 조선의 영향을 받아 그림무늬가 많았으나 양산체제로 변하면서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이때부터 적색과 금색을 많이 쓴 호화찬란한 고이마리 양식, 연한 자기표면에 붉은 그림이 우아하게 든 포석어문 양식이 형성되었다.

### 3) 오스트리아의 카펜 스타인 도예촌

- 오스트리아 동부 스타이에마르크 지방의 카펜 스타인 읍에 위치해 있는 이 도예촌은 조각가와 도예가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 도예촌은 처음 형성된 것은 아오구스테 만쉐가 큰 저택을 제공하여 도예가들이 입주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도예촌은 모든 작가들이 서로 작품에 대한 비평과 격려로 협동 작업을 하며 조형성을 추구하는 강한 예술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전시회가 매년 열리며 매년 도예를 주제로 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 4) 캐나다의 하버프론트 공예공방촌

- 캐나다 토론토시의 퀸서 쿼 웨스트에 자리하고 있는 하버프론트 공예촌은 하버프론트의 관광 명소와 인접한 몬타리오 호수가에 세워졌다. 이 공예촌은 대중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예와 관광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공예촌에는 지역주민, 관광객 및 타 분야 전문 예술가들에게 공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전시회, 강의, 세미나, 워크숍, 실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약 3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여 뜻깊은 도예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공예촌은 금속, 도자, 유리, 섬유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설 전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예가가 개성있는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제3절 소결

- 국내외에 있는 도예촌 현황조사로부터 도출된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례종합

- 계룡산 도예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곳으로 이천 및 강진도예촌을 현황을 보면, 두 도예촌 모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초기 수공자기 생산에서 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도예촌에 관광 및 교육의 개념을 도입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규모면에서는 이천지역에 466개 업체(종사자수 996명)가 있으며, 강진에는 24개 업체(종사자수 77명)가 있다. 생산품목에 있어서는 이천은 청자에서 백자까지 전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강진은 청자를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반면, 옛 도예촌을 구성하는 개개의 가옥에는 생산, 판매, 전시 등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으며, 자기의 품질 및 마케팅 능력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심다.
- 관리운영 측면에서 이천의 경우는 이천 민속도자기 사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판매, 전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강진은 군운영의 청자사업소와 민간도요로 운영되고 있는데 입지여건의 극복과 시장 확보가 당면과제이다.
-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천 및 강진도예촌 모두 계획단위의 도예촌 및 관광지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작품성 위주의 도기 생산 뿐만 아니라 자기 관련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국외사례 중 우리와 근접하여 유사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이 발달한 곳은 큐슈지방의 사가현으로 그 대표적인 지역이 아리따시와 이마리시 이다.
- 일본의 도자산업은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도자기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도예산업의 육성하여 관광문화 상품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아리따, 이마리의 도예촌 형성은 일본의 도조의 시조로 불리우는 조선도공 이삼평의 자기제작을 시발로 시작되었다.
- 관리·운영 측면에서 도예촌 정비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현의 요업센터와 컨소시엄 및 아리따 요업대학과 연계하여 도자산업을 육성하고 있다.<sup>18)</sup>

## 2) 시사점

### (1) 계룡산 지역의 특성·주제를 가지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계획적 개발

-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는 분명 지역육성에 있어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자원 그 자체로서는 상품화에 한계가 있다.
- 특히, 단일기능으로는 다양성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성·복합성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따라서, 도예촌 내에 단기간에 많은 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도자기관련 공장·판매점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과 함께 정주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마을 자체를 “계룡산지역만의 독특성이 풍기는 철화 분청사기 박물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관광개발 및 단계적 사업 투자

-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방문객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즉,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
- 초기에는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자기 관련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관광시설의 특징상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회수기간은 길다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규모 시설 투자보다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접근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18) 산업자원부, 도자기 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2002.2

### (3) 도예촌의 접근성 및 관광지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양호한 접근성은 방문객 입장에서 볼 때, 도심·근린공원과 같은 느낌을 주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상지역이 대전권 근교에 위치한 점, 주5일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도시근접공원 관광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접근성과 함께 관광 자원간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방문자 입장에서는 한번의 여행에서 多施設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룡산국립공원, 유성온천지구, expo과학공원 등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간<sup>19)</sup>의 연계성 확보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주요한 요소이다.

### (4) 도예촌 주변 지역주민·관계자의 의견 통합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운영

-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행자의 의지로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합의 및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이 전제되어야 한다.
- 따라서, 도예촌 주변 지역주민 및 사업관계자의 지속적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운영의 아이디어 창출<sup>20)</sup>이 필요하다.

### (5) 이벤트 및 소프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운영을 통한 공간 활성화

- 하드웨어적 시설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시설물 및 다양한 기능의 도입과 함께 이벤트의 획기적·지속적인 도입이 없는 한 조성 후 2~3년이 지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sup>21)</sup>
- 따라서, 계절별, 월별 이벤트의 도입과 함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소프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

19)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시설을 관람하는 등의 볼거리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느끼면서 맛있는 음식을 동시에 만끽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관광 측면만이 아니라 먹거리체험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 주제로서 지역 상품인 도자기에 집착하는 것은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면 단조로운 주제로 흥미를 잃을 수 있다.

21) 손상락, 지역발전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 제3장 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 제1절 일반환경특성

### 1. 자연환경특성

#### 1) 위치 · 면적

-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위도 36°22' ~ 36°24', 경도 127°13' ~ 127°1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1) 상신리, 하신리2)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상신리와 하신리는 면적상으로 10.4km<sup>2</sup>로서 반포면의 13.3%, 공주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 1) 반포면은 공주시에서 중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대전광역시, 서쪽은 공주시 계룡면, 남쪽은 논산시, 북쪽은 공주시 장기면과 접해있다.
- 2)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상신이라 하고 반포면에 편입되었다. 예전에는 신소라고 불렀으며 그 뜻은 ‘깊고 큰 소(沼)’라는 뜻이다. 신소 위쪽은 상신리, 아래쪽을 하신리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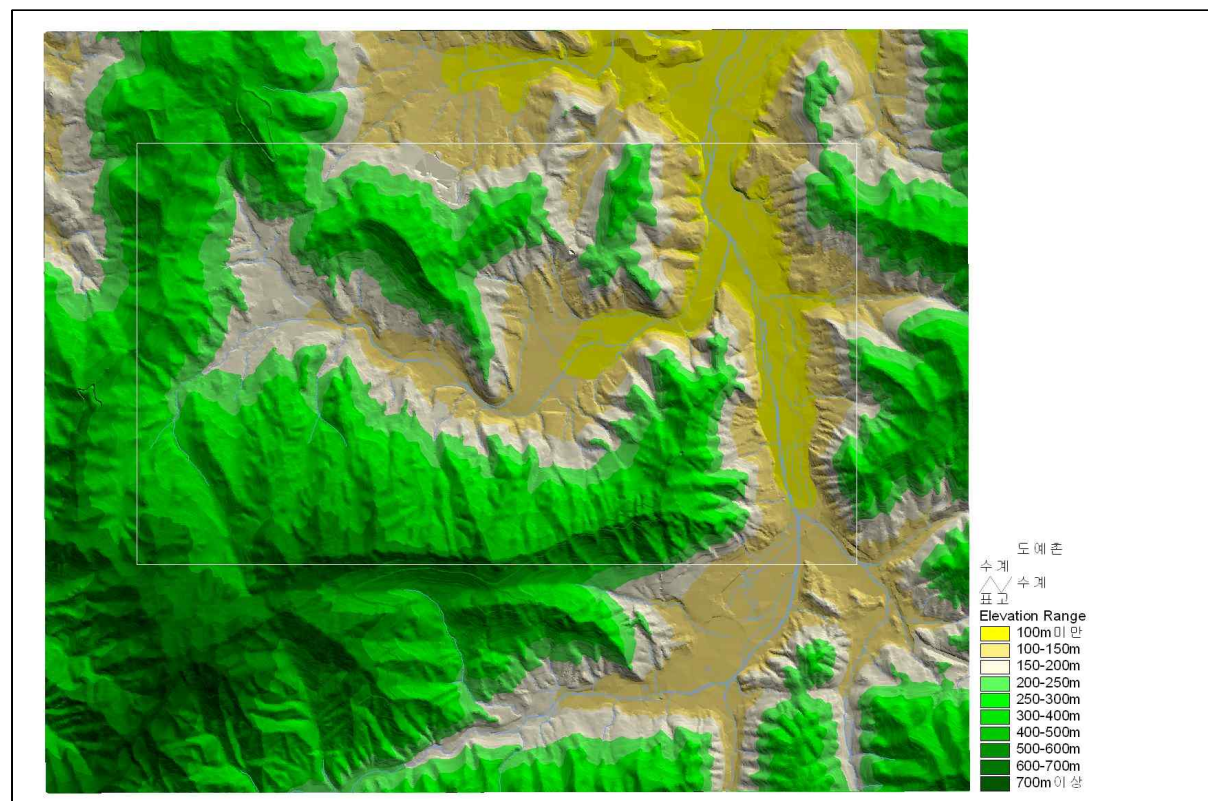
## 2) 표고

- 계룡산 줄기로 둘러싸여 있는 반포면 상하신리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높이는 772.64m이고 최저 높이는 64.84m이다.
- 상하신리를 중심으로 한 대상지내 표고는 가장 높은 곳이 645.645m이며 가장 낮은 곳이 표고73.41m를 보이고 있다.
- 지역의 표고는 시설물 입지 및 개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표고 200m이하의 면적은 7,364천m<sup>2</sup>로 분석되었으며, 표고별 면적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표-1] 표고현황

(단위 :천 m<sup>2</sup>)

표고(m)	100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500-600	600이상	총계
면적	1,506.8	2,914.4	2,942.8	2,500.4	1,922.4	2,460.8	1,266.4	472.4	48	16,034.4
%	9.4	18.2	18.4	15.6	12.0	15.3	7.9	2.9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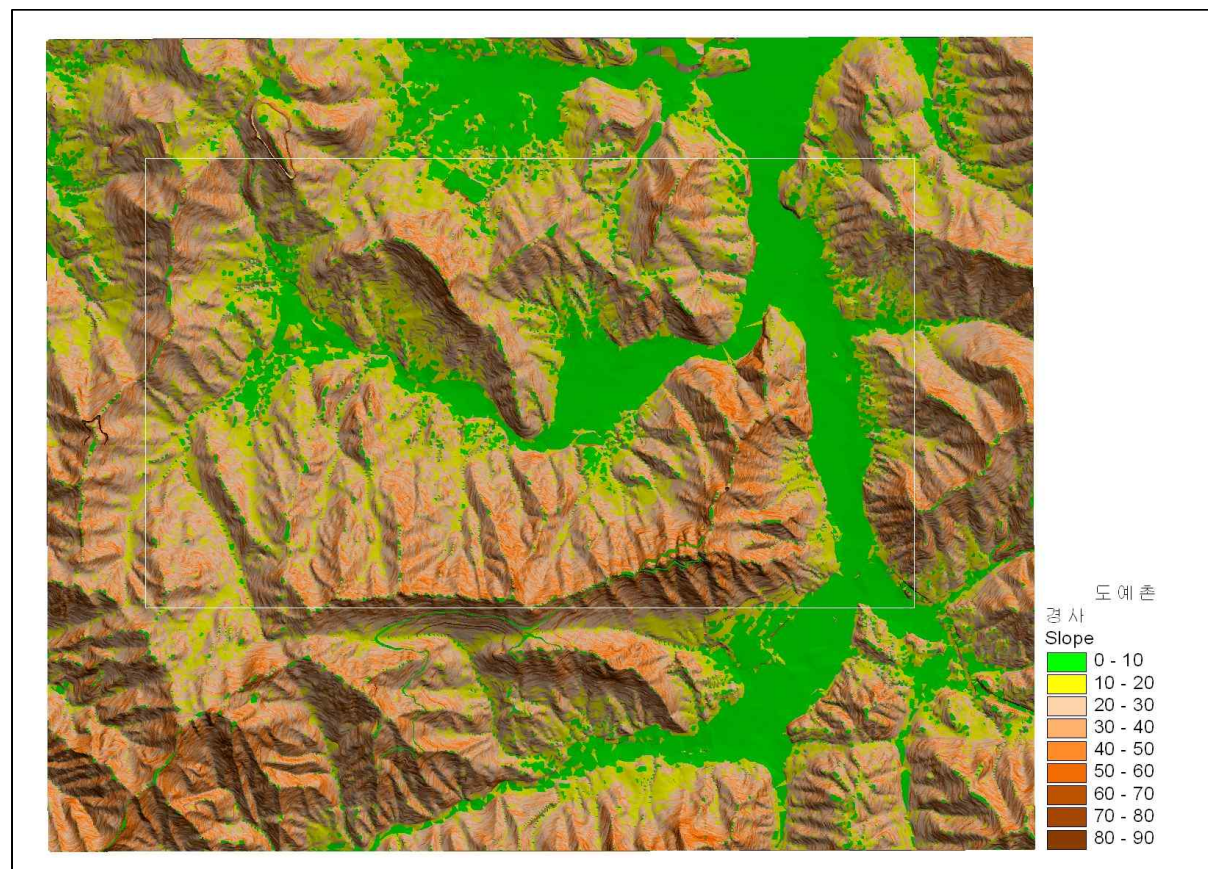
### 3) 경사

- 대상지내의 최고 경사도는 83.45°이며, 50°이상 지역은 277.6천m<sup>2</sup>이고 시설물 입지가 어려운 30°이상의 부지면적은 4,973.6천m<sup>2</sup>로서 전체면적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경사 30°이하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을 최소화하며, 시설물 입지가 적합한 경사를 고려한다면 20°이하가 적당하는데 이의 면적은 6,104.8천m<sup>2</sup>이다.
- 경사구간별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2] 경사분석

(단위 :천 m<sup>2</sup>)

구분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이상	총계
면적	2,939.6	3,165.2	4,956.0	3,492.0	1,204.0	277.6	16,034.4
%	18.3	19.7	30.9	21.8	7.5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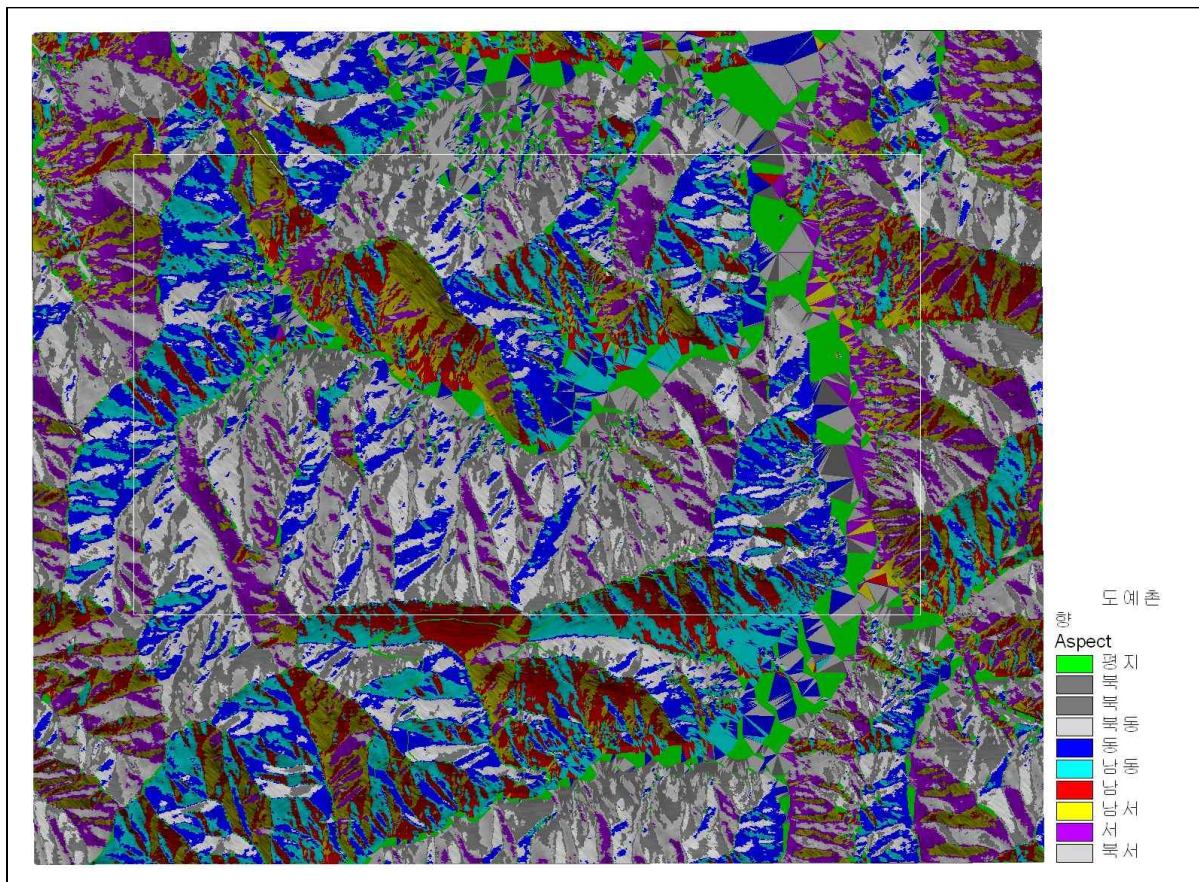
#### 4) 향

- 상하신리는 지형상 계룡산 자락에 의한 골로 형성되어 있어 주된 주향이 분포하고 있지 않고 북동, 동, 북, 북서향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 따라서, 건물입지가 불리한 북, 북서, 서향의 지역은 보존적 측면에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 시설물 입지의 남, 남서, 남동, 동향을 취하는 지역으로 하되 경사 및 지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3] 향분포 현황

(단위 :천㎡)

구분	평지	북	북동	동	남동	남	남서	서	북서	총계
면적	1,155.6	2,057.2	2,545.6	2,473.2	1,522.0	1,170.8	1,310.0	1,798.4	2,001.6	16,034.4
%	7.6	12.8	15.9	15.4	9.5	7.3	8.2	11.2	12.5	100.0



## 5) 경관특성

- 도예촌이 입지하고 있는 상신계곡은 남, 서, 북 방향으로 계룡산에 의해 위요되어있다.
- 따라서, 도예촌에서의 시야는 산자락에 의해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주며, 전원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 시야는 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V자형 상하신리 계곡을 따라 공간의 흐름이 이어진다.
- 상신리에서 하신리로 갈수록 계곡의 공간은 넓어지고 개방된 공간에 이르게 되며, 용수천과 금배봉에 이르게 된다.
- 마을 가옥들의 입지는 주로 남향으로 되어 있어, 가옥내에서는 계룡산 자락을 뒤로 하고 상신리에서는 신선봉, 하신리에서는 장군봉을 마주하게 된다.



## 2. 인문환경특성

### 1) 인구 · 산업

- 인구는 2003년 현재 상신리 335명, 하신리 224명, 총 559명으로서 반포면 인구의 약10.1%를 차지하고 있다.

[표-4] 인구현황

(단위: 명)

구 분	상신리			하신리		
합 계	계	남	여	계	남	여
559	335	180	155	224	120	104

- 상하신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총90개소이며 이중 농임업 부문이 83개소로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상 · 하신리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소, 명)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고
합 계	90	159	
농,임, 수렵업 및 임업	83	149	
건설업	1	1	• 재무부령 사업자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	2	2	
숙박 및 음식점업	3	6	• 구곡정, 상산상회, 등산로식당
교육서비스업	1	1	• 공주시 교육청 학생야영장

※ 상신리 도예촌에 입지하고 있는 도예업소 16개소는 별도

### 2) 교통

- 공주시에서 대전광역시로 향하는 32번 국도를 따라 창벽대교와 마티터널을 지나 약 3km정도 오면 상하신리에 도착하게 된다. 대전방면에서는 유성 IC로부터 공주방면의 국도 32번을 타고 약10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대상지 입구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약 4km지점에 하신리 마을이 나오고, 서쪽으로 약 1km지점에 상신리 마을이 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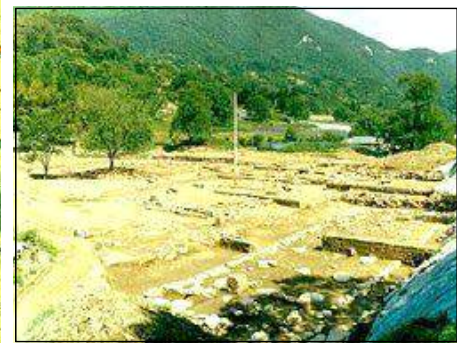
### 3) 주변자원현황

- 상신리 도예촌이 속해 있는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로서 무령왕릉,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곰나루 국민관광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등 역사 및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접하여 유성온천이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또한, 계룡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하여 인근에는 산림박물관, 동학사, 남매탑, 조각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장군봉, 신성봉, 수정봉 등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 계룡산 도예촌이 입지하고 있는 상신 계곡에는 현재 옛 가마와 구룡사지, 당간지주 등이 있다.

[그림-5] 상신리 당간지주



[그림-6] 구룡사 발굴모습



## 제2절 역사적 배경 및 시설일반현황

### 1. 역사적 배경

- 대상지의 역사적 배경으로, 본 절에서는 상신리 지역을 국한하여 보기 보다는 철화 분청사기 요지가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계룡산<sup>3)</sup>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계룡산 주변지역에는 분청사기<sup>4)</sup>를 굽던 여러 도요지<sup>5)</sup>가 있는데, 요지의 입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룡산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 계룡산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요지의 분포현황을 보면, 소재지로는 25곳, 수량은 29기로서, 시대별로는 고려 4기, 조선초기 3기, 조선중기 이후 27기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상신리는 전통마을의 원형을 간직한 솟대 마을로서 인근에는 구룡사지 유적이 있다.
- 철화의 기법은 청자의 발생지인 전남 강진군 대구면으로부터 부안군 산내면으로 계승되다가 계룡산 지역에서 그 찬란한 도자문화를 꽃피우게 되는데,
- 철화 분청사기<sup>6)</sup>의 중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 일대로 옮겨지게 되면서

---

3) 계룡산이란 이름은 그 모양이 닭벼슬 같기도 하고, 용의 모습 같기도 하여 이름을 鷄龍山이라 지었다고 한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계룡산은 마이산에서 시발하였다고 한다.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의 한 줄기로서 솟구쳤다는 뜻의 속금산이란 이름을 가진 기이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이산은 그 산줄기가 힘차게 북상하여 대둔산을 이루고 그 맥이 다시 북상, 세칭 逆龍 300리 하여 서북쪽을 향해 연꽃처럼 활짝 열린 산이 계룡산이라고 한다.

그 맥은 국사봉에서 뭉쳤다가 북쪽으로 밀어 상봉을 이루고, 상봉에서 서쪽으로는 관음봉, 문필봉을 만든 다음 연청봉에서 힘차게 서북쪽으로, 다른 한줄기는 북동쪽으로 뻗어있다.

상봉에서 동쪽으로 짧게 흘러, 남쪽에는 신도안을 만들었고, 남서쪽으로는 신원사 고랑의 마을을, 서북쪽으로는 갑사 고랑의 큰 마을을, 북동쪽으로는 구룡사지가 있는 상신리 및 하신리 마을을, 동쪽 협곡으로는 동학사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도자예술은 고려의 청자,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표되며, 특히 철화분청사기를 굽던 곳은 계룡산 줄기에 국한되어 있다. 조선시대 연산조에 이르러서는 경상도 지방의 고령, 상주 등과 더불어 생산기술, 품질이 으뜸이어서 강진의 고려청자, 광주분원의 청화백자, 계룡산의 분청사기를 “한국 도자의 三色”이라 하였다.

5) 예로부터, 계룡산 주변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여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청자·분청사기·백자·흑우 자기편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6)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써 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 졌으며 청자

새롭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가운데 철화기법 역시 고려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계룡산 일대는 경기도 광주군 분요와 함께 조선조 도자기 생산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된다.

- 이 일대의 가마터에는 청자·흑유·분청·백자 등 한곳에서 제작된 다종의 기물이 나오고 철화 분청사기는 다른 곳에서는 변조한 예가 없기 때문에 “계룡산 분청”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 계룡산 가마터의 개요시기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 삼한 고찰이었던 동학사에는 절에서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였던 도자기 가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때, 14세기 이전(고려말)에 개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계룡산 가마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바 공주 동쪽 동학동에서 중품의 자기와 구이동에서 하품의 자기가 생산되었다고 기재되었으며, 현재의 위치로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사적333호)이다.
-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계룡산 도예촌의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이외에도 계룡산 일원에서 많은 역사적 도요지가 발견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계열의 거칠고 어두운 색상의 점토에 백토를 분장하여 조각을 하거나 문양을 장식하여 토를 굵은 붓으로 칠하기도 하고 백토에 담그기도 하여 흙의 맛을 잘 나타내는 자기이다. 백토로 분장한 후 인화, 상감, 박지, 조화, 백토, 철화 등으로 문양을 구사한다. 형태는 서민적 이어서 순박한 느낌을 갖는다.

- 7) 「계룡산 분청」이란 별칭이 있는 철화분청사기는 정제되지 않은 사질토에 어린 소나무 가지나 싸리로 만든 귀얄로 선명하고 굵직한 분장토를 기물표면 위에 바르고 자연에서 채취한 철제로 대범하고 추상적이며 회화성이 우수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특히, 계룡산 분청사기는 거칠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검게 보이는 태토를 감추기 위해 막걸리색 분장토를 사용하여 자연에서 채취한 어린 소나무 뿌리나 싸리 가지를 묶어 만든 붓으로 귀얄 자국이 선명하고 굵직한 문양을 남겼다. 고려말기의 회청자기와 함께 분청사기는 청자기법을 그대로 계승한 인화상감으로서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조선조로 들어서게 된다.

[그림-8] 계룡산지역 요지 위치도





[표-6] 요지 분포현황

번호	소재지	시대	수량	특기사항
1	사곡면 신영리	고려	3	· 문양이 없는 청자로서 접시, 사발 등
2	정안면 어물리	고려	2	· 분청계룡자기, 색상이 뛰어남
3	반포면 송곡리	조선초기	산포	· 분청사기의 대접이 주종
4	반포면 온천리	조선	5	· 청자, 백자, 토기, 분청사기
5	반포면 학봉리	조선	5	· 분청사기, 백자(위시기소)
6	계룡면 중장리	조선	1	· 백자, 생활용품 대접
7	유봉면 명곡리	조선	1	· 분청사기, 백자
8	유봉면 유봉리	조선	1	· 청화백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기류
9	신평면 쌍대리	조선	1	· 투박하고 색감이 선명치 못한 백자
10	반포면 하신리	조선	1	· 분청사기, 백자, 상감기법의 청자
11	반포면 봉곡리	조선	1	· 백자
12	의당면 도신리	조선	2	· 백자, 분청사기(인화분청)
13	의당면 덕학리	조선후기	1	· 백자사기(대접, 사발)
14	신평면 동원리			· 토기
15	의당면 중흥리	고려	1	· 토기
16	사곡면 윤암리		1	· 토기
17	정안면 월산리		1	· 토기
18	우성면 보흥리	백제	1	· 토기
19	이인면 신흥리	조선	1	· 기와
20	반포면 상신리	조선	1	· 기와
21	유구면 구계리	조선	1	· 기와

## 2. 도예촌 시설일반현황

- 2003년 6월 현재 계룡산 도예촌의 업체수는 16개(도자기 생산업체 15개, 전시 판매장 1개), 생산업체 종사자수는 20명,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은 총 3억8천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공동 1개, 개인 1개 등 총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8개소의 도예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 계룡산 지역의 시설규모를 이천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 열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사자수, 공장등록업체, 전통가마 보유수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강진과는 업체수, 종사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장규모, 전통가마 보유수 및 도예교실운영에 있어서는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 시설현황을 통해 계룡산 도예촌은 경기도 일원의 이천, 광주, 여주지역과는 도자생산에 있어 상대적 열위에 있어, 도예촌 조성 및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 시설정비 및 확대와 함께, 철화 분청사기를 주제로 하여 제품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7] 도자기 업체 현황 (2003.6월 현재)

구 분	업 체 수 (개 소)			전년대비
	도자기생산업체	전시판매장	도자기관련업체	
합 계	15 (72.1%)	1 (23.8%)	-	변동없음

※ 참고 : 이천 466개, 강진 24개소

[표-8]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자수

계	남	여	비고
20명	11 (55%)	9 (45%)	-

※ 참고 : 이천 996명, 강진 77명

[표-9]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 현황

계	구분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비고
15개		10 (66.6%)	5 (33.4%)	-

※ 참고 : 이천 336개, 강진 12명

[표-10]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계	자산규모에 따른 업체분포		
	1억 미만	1~5억원이하	5억원이상
15 개소	6 (40%)	9 (60%)	-

[표-11] 도자기 생산업체 종업원수별 현황

계	종업원 수에 따른 업체분포		
	5인 이하	6~10인 이하	10인 이상
15 업체	15	-	-

[표-12] 도자기 생산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현황

계	년 간 총매출액	연간 매출액에 따른 업체분포		
		2천만원 미만	2천만원~1억원이하	1억원 이상
15 업체	38,000만원	7 (47%)	8 (53%)	-

[표-13]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전통가마 보유현황	도예교실 운영업체
공동: 1개, 개인: 1개	8 개소

※ 이천 전통가마 보유 29개, 도예교실 운영 : 2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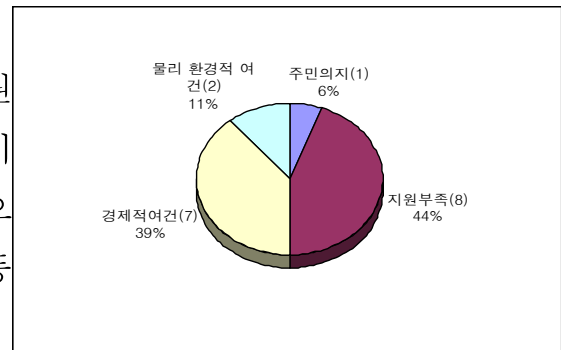
※ 강진 전통가마 보유 4개, 도예교실 운영 : 1개소

## 제3절 설문조사

### 1) 주민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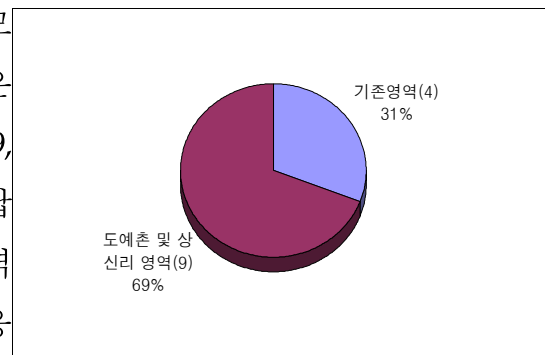
#### (1) 마을 발전의 저해요소

- 마을이 발전되지 않는 요소로는 지원 부족(8, 44%)과 경제적 여건(7, 39%)이 전체의 8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물리·환경적 여건 및 주민의지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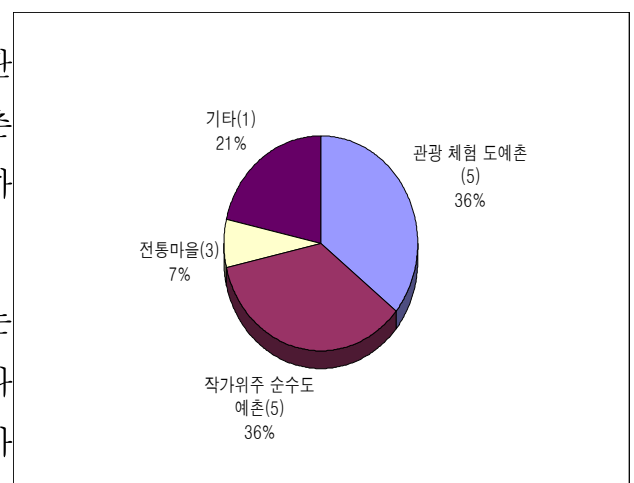
#### (2) 도예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적정공간 규모

-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발 규모에 대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예촌은 포함한 상신리 마을영역(9, 69%)까지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마을영역 내에서 개발(4, 31%)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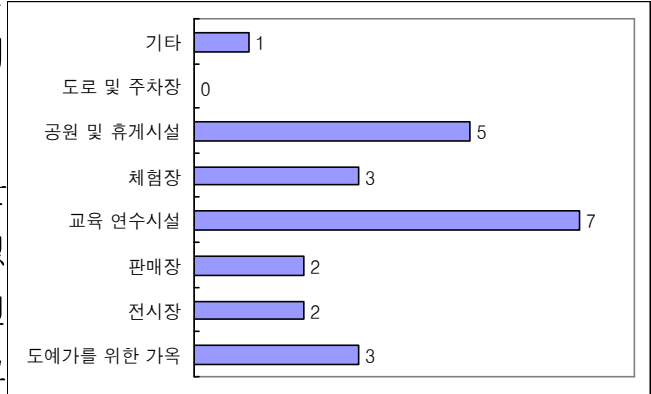
#### (3) 상신리 도예촌의 미래상

- 도예촌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에서 관광체험도예촌과 작가위주 순수도예촌이 각각 36%로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즉, 순수 도예촌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광도예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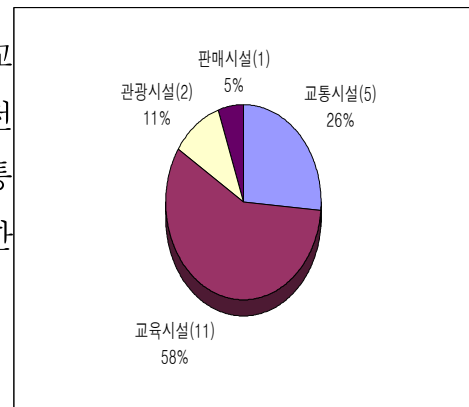
#### (4) 미래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설

- 미래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는 교육연수시설(7, 30.4%), 공원 및 휴게시설(5), 체험장 및 도예가를 위한 가옥(각3), 판매장 및 전시장(각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에서 주민들은 도예촌의 발전은 도예인구의 저변확대에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연수시설이 가장 필요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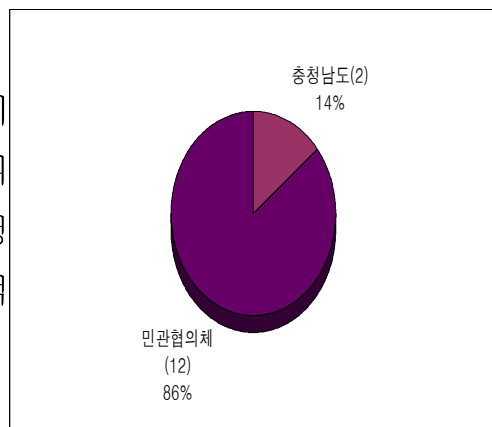
#### (5) 현재 도예촌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 현재 가장 필요한 시설로서는 교육시설(교육장 및 체험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사업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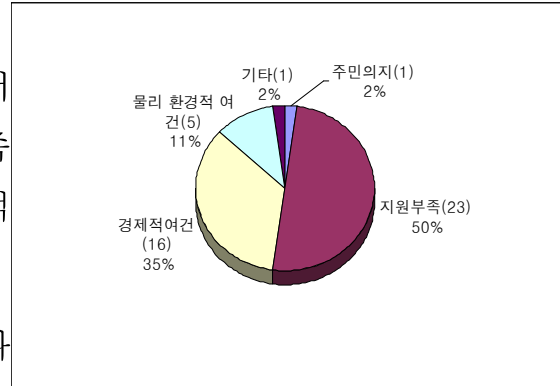
- 도예촌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86%가 민관협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밖에 충청남도가 12%로 나타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 2) 방문객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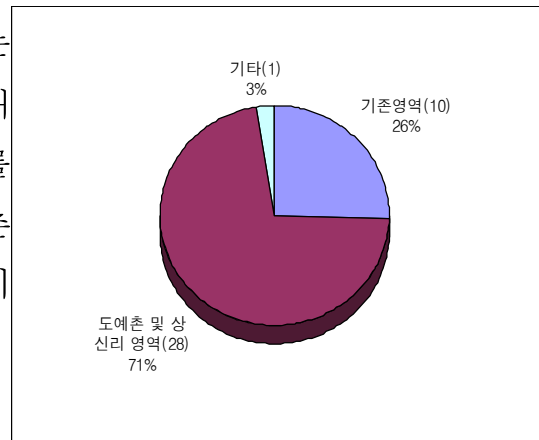
### (1) 마을 발전의 저해요소

-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예촌의 발전 저해요소로서 지원부족(50%), 경제적 여건(35%), 물리환경적 여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즉, 주민의지 부족보다는 기본 인프라 지원이 미흡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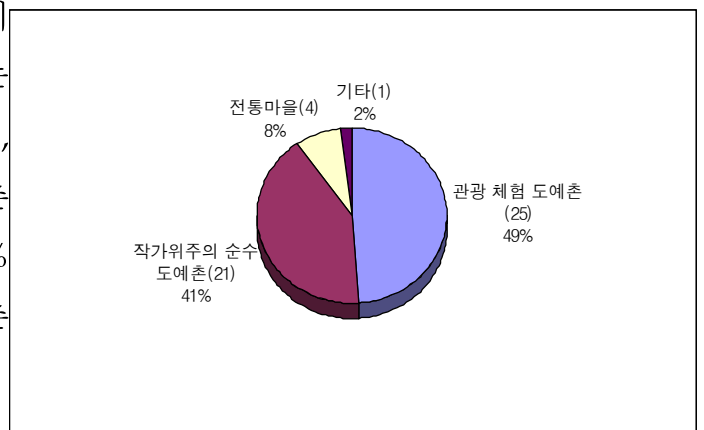
### (2) 도예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적정공간 규모

- 도예촌 장기발전을 위한 공간규모로는 도예촌을 포함하여 상신리 영역까지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도예촌 영역 내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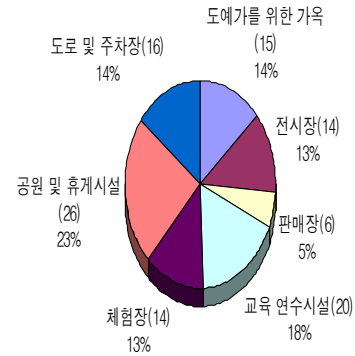
### (3) 상신리 도예촌의 미래상

- 도예촌의 미래상에 관련하여 관광체험형 도예촌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작가위주의 순수 도예촌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장기적으로는 관광체험형 도예촌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4) 미래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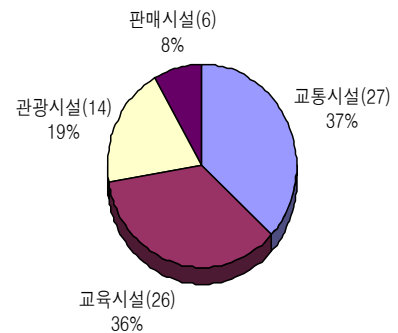
- 미래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는 공원 및 휴게시설(23%), 교육연수시설(18%), 도로 및 주차장(14%), 도예가를 위한 가옥(14%), 체험장(13%), 전시장(13%), 판매장(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미래상 구현을 위한 시설물에서는 여러 시설들이 고루 요구되었는데, 방문객들에게 어느 하나의 시설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원화된 관광 체험촌 시설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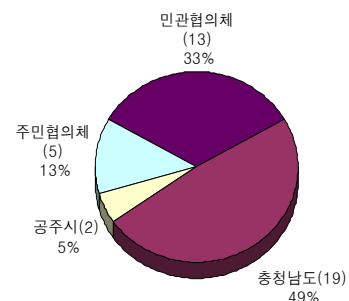
#### (5) 현재 도예촌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 방문객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시설은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교육시설(교육장, 체험장 등), 관광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즉, 현재 상신리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 이정표 및 안내판 등이 보완되어야 할 시설로 조사되었다.



#### (6) 사업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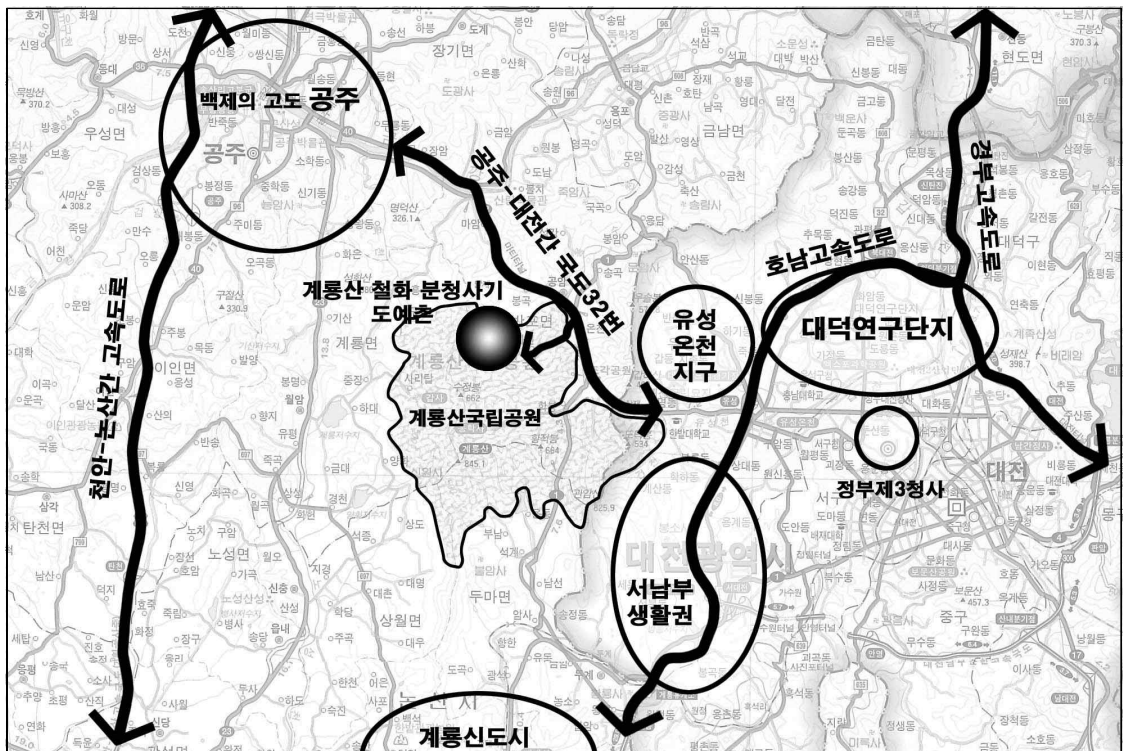
- 도예촌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한 설문에서는 충청남도(19, 49%), 민관협의체(13, 33%), 주민협의체(5, 13%), 공주시(2, 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 제4절 소결

### 1. 입지적 여건

- 대상지는 우리나라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경기도 이천 및 전라남도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요지 중의 하나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 지리적으로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대전-청주권의 지식 정보산업단지, 신행정 수도 건설, 백제·내포문화권 개발과 고속전철 및 도로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상태이다.
- 행정구역상 공주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근접하여 도심근교의 관광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계룡시의 승격으로 관광수요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인접한 계룡산국립공원은 전국적 관광 명소로서 주변에는 유성온천, 조각공원, 산림박물관 등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계룡산간 폭4차선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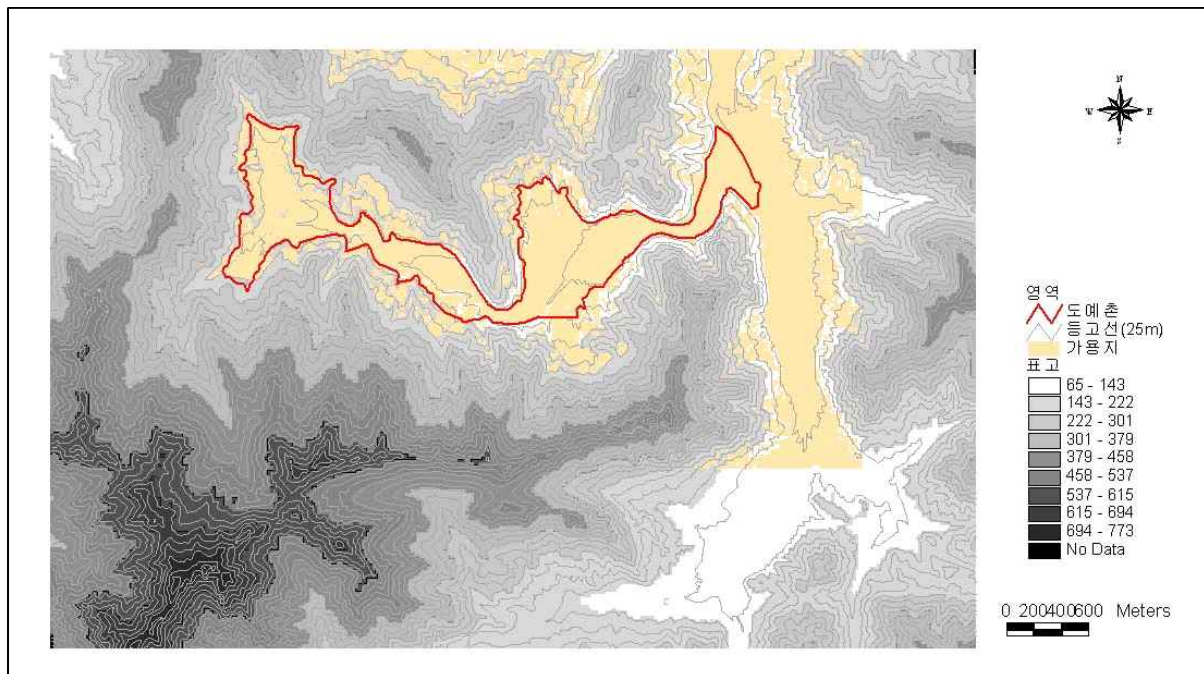
## 2. 가용지 분석

- 대상지내 가용지 분석은 우선 표고, 경사, 향 등을 중첩(overlay)하여 분석하였다. 표고는 주변지역의 대상지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표고를 250m미만으로 설정하고, 경사도는 지형의 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용면적을 분석하였다.
- 가용지 분석결과 경사, 향, 표고를 만족하는 총가용면적은 약1,645.6천㎡로 분석되었다.

[표-14] 경사, 향, 표고 등을 고려한 가용지 분석

(단위 :천㎡)

표고/경사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총계
100m미만	386	9.6	2.8	0.4	0	0.4	0.4	399.6
100~150m	533.2	159.2	36.8	15.6	2.4	2	0	749.2
150~200m	273.2	148.4	50.4	14	2	1.2	0	489.2
200~250m	2.4	2.8	1.6	0.8	0	0	0	7.6
총계	1,194.8	320	91.6	30.8	4.4	3.6	0.4	1,645.6



### 3. 설문에 의한 개발방향

- 설문조사를 통하여 1) 도예촌의 적정개발공간규모, 2) 미래상, 3) 도입시설, 4) 사업추진주체 등 부문별 개발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예촌의 적정공간규모

- 도예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적정공간 규모로서 기존의 도예촌을 포함하여 상신리 영역까지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1,645.6천m<sup>2</sup>에 속한다.
- 도예촌 공간 규모 : 약1,645.6천m<sup>2</sup>

#### 2) 도예촌의 미래상

- 도예촌의 미래상은 작가위주의 순수도예촌 성격과 더불어 관광체험 도예촌으로의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 도예촌 미래상 : 관광체험도예촌

#### 3) 도입시설

- 미래상 구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서는 교육·연수시설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공원 및 휴게시설을 들었다.
- 즉, 도예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도예촌 관련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었다.
- 도입시설 : 교통시설 - 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단기적)  
교육·연수시설 - 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장기적)

#### 4) 사업추진주체

- 사업추진주체로서 주민들은 민관협의체, 충청남도 순으로 응답하였고, 방문객들은 충청남도, 민관협의체 순으로 응답하였다.
- 사업추진주체 : 민관협의체 또는 충청남도

# 제4장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 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1. 도예촌 성격

- 탈현대적 미감의 분청사기, 비취보다 고운 비색의 고려청자, 백옥보다 우아한 조선백자 등은 한국전승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sup>1)</sup>로서 한국 도자문화의 우수성<sup>2)</sup>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계룡산 지역은 경기도 이천, 전라남도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요지 중의 하나로서, 철화기법을 이용한 분청사기의 제작과 함께 일본 최초의 백자를 구워낸 이삼평을 배출한 지역이다.
-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계룡산 도요지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민 모두가 공유하여야 할 자산이다. 따라서 계룡산 도예촌은 철화 분청사기 도예를 전승하는 전통도예촌으로, 도예인들에게는 작품창조와 생활도예촌으로, 방문객들에게는 체험·관광의 도예촌으로 될 수 있는 분청사기 체험·관광 도예촌으로 조성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도예전시공간, 체험공간,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시설 및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전통과 역사를 소재로한 철화 분청사기 테마 도예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2. 조성방향

- 계룡산 국립공원 등 주변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도예촌 조성
- 철화 분청사기 전승과 도예 문화의 창달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 테마와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있는 복합기능 공간 조성
-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개발 효과 극대화

1) 산업자원부, 도자기 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2002.2, p33

2)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백자는 세계도자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은 세계에 알려져 있다.

## 제2절 도예촌 조성 기본 구상

- 도예촌의 개발규모,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이용자 수요예측 및 계층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수요예측

- 계룡산 도예촌의 이용자수는 설문조사에 의해 분석된 방문자 출신지별로 1차 이용권 대전과 2차 이용권 충남, 서울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 여행목적별 활동율은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민속촌, 사적지, 산 등을 목적지로 방문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권역별 이용분담율은 현재 계룡산 도예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출신지를 설문조사하여 적용하였다.

구분		1차 이용권	2차 이용권	비고
1	권역별 연간관광총량	9,082천명	70,136천명	
2	여행목적별 활동율	11.6% <sup>1)</sup>	5.6% <sup>1)</sup>	
3	목적지 관광참여인구	1,054천명	3,928천명	= 잠재행락 참여인구 × 여행목적별 활동율
4	권역별 이용분담율	63.0% <sup>2)</sup>	37.0% <sup>2)</sup>	
5	이용가능객수	664천명	1,453천명	= 이용잠재량 × 권역별 이용분담율
6	권역별 흡입율	30.0% <sup>3)</sup>	20.0% <sup>3)</sup>	
7	총이용객수	199천명	291천명	= 이용가능객수 × 권역별 이용율
8	총 계	490천명		

주 : 1) 권역별 연간 관광 총량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2000.12 한국관광연구원 p125참조

2) 국민여행실태조사 2002.6 한국관광공사 참조

3) 국민관광장기계획 연간국민관광객 수 (인구×참여율)

• 최대일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 × 최대일율 (3계절형 1/60)

$$489,757명 \times 1/60 = 8,163명$$

• 일평균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 / 365일

$$489,757명 / 365 = 1,342명$$

• 설계기준일 이용자수 = 최대일 이용자수 × 서비스율(0.5)

$$8,163명 \times 0.5 = 4,081명$$

•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평균체제시간	4시간 (체제시간 3시~5시)
• 회전율	3/10 (0.3)
• 최대시 이용자수	= 설계기준일 이용자수 × 0.3 4,081명 × 0.3 = 1,224명
• 주차대수 최대시 방문자수 중에서 대형버스는 1/3, 소형차 2/3	
대형버스	1,224명 × 1/3 / 40 = 10대
승용차	1,224명 × 2/3 / 4 = 204대

## 2. 이용자 계층분석

- 계룡산 도예촌의 접근로는 공주시와 대전광역시를 연결하는 국도 32번과 접하고 있어 차량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 설문조사에 의해 방문목적은 분류한 결과, 방문객 유형은 도예 체험 및 교육, 도자기 구매, 도자기 감상, 휴양 및 관광의 순 등으로 나타났으나, 도예촌의 물리적 환경이 정비·완료된다면 총 방문자수가 증가되면서 구매, 감상, 휴양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이 확충된다면 현재의 1박2일 수요 또한 획기적 증가가 예상된다.
- 반면, 방문객의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 창작공간의 개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작품창작활동의 지장도 예측된다.
- 따라서, 이용자의 방문목적과 공간이용빈도에 따른 공간밀도의 적절한 배분과 기능설정이 필요하며 기존 조성된 정주창작공간은 입주작가들의 의견을 들어 공간의 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용권역	이용계층	이용행태
1차 (대전권)	- 가족, 단체, 도예관련방문자 등	체험, 교육, 문화, 관람 등
2차 (충청,서울 등)	- 관광객, 동호인, 수학여행단 등	관광, 견학, 관람, 구매 등

### 3. 기능에 따른 공간 설정

- 이용자의 활동 예측에 의해 그 기능과 공간을 설정하면 교육체험기능, 휴게기능, 전시·판매기능, 부대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간기능별 역할과 도입가능 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교육·체험공간

##### (1) 역할

-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관광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예역사 및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고 제작과정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청사기 연구소, 도예문화관 등을 설립하여 도자기 소재, 제작, 디자인 등의 종합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2) 도입가능시설 및 기능

- 도입가능시설로는 분청사기 연구소, 문화관, 도예교육관(수련원), 실험공방, 작업장, 도자정보센터 등이 있으며 시설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철화 분청사기 연구소	- 분청사기 및 철화분청사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 제작기법, 소재 등의 연구)
철화 분청사기 문화관	- 계룡산지역의 도자문화의 정립과 홍보
도예학습체험장(야영장)	- 도예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체험을 위한 시설조성 및 프로그램 도입
도예공방	- 현재의 도예작가 및 추후입주자를 위한 도예공방의 확충
실험 작업장	- 도자기와 관련된 제작실, 시험기구실, 실험실을 등 도입
도자정보센터	- 도자산업정보, 관련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 2) 공원 · 휴게공간

### (1) 역할

- 도예촌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도시근교의 문화공원으로서 방문객에게 휴게기능을 제공한다.
- 공원에는 전통마당개념의 open-space를 설치하여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서 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 (2) 도입가능시설

- 공원 · 휴게공간에 도입시설로는 도예인의 길, 도예마당, 이벤트 광장, 도예조각공원 등이며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도예인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과 도예촌을 연계, 도예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여,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li> <li>- 로면의 포장은 도자기를 활용하여 시대별, 종류별로 포장</li> </ul>
도예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예촌의 중심광장으로 도예촌의 상징적 공간</li> </ul>
이벤트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예촌과 연계된 이벤트 광장</li> </ul>
도자조각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자기를 소재로 한 콘텐츠 조각 전시</li> <li>-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도자기를 소재로 동화, 전설 등의 미니어처 전시)</li> <li>- 조각공원 조성사례</li> </ul> 

### 3) 전시 · 판매공간

#### (1) 역할

- 전시는 입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와 도자 관련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전시하는 상설전시 및 영상전시 등을 하여 관람자에게 계룡산 도예문화에 대한 역사, 수준, 이해 등을 돕는다.
- 방문객의 접근로변 및 이삼평 기념비가 입지한 계룡산 조각공원, 학봉리 사적지 주변에 수익구조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주작가들의 작품 및 서적자료를 판매하는 상설판매장, 기념품 매장을 설치하고 민간재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2) 도입가능시설

- 전시 · 판매공간에 도입가능시설로서는 박물관, 전시관, 갤러리, 아트센터, 야외전시장, 상설판매장, 기념품 매장 등이 있으며 도입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계룡산 도예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측면에서 일본 및 중국 도자기의 전시를 통한 철화 분청사기 특징전시</li> <li>- 계룡산지역의 도자의 특징과 역사연구</li> <li>- 도자 관련유물 · 유적 · 사료 전시</li> </ul>
도예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도자 유적 · 유물전시 및 관련 콘텐츠 상품판매</li> </ul>
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명작가들의 작품전시 및 판매</li> </ul>
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자기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의 전시 및 판매</li> </ul>
야외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예촌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작품전시</li> <li>-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사진촬영 장소 제공</li> </ul>
상설판매장 및 기념품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화 분청사기 등 계룡산 지역의 작품을 전시 · 판매</li> <li>- 우수도자기를 시중보다 10~20% 할인하여 판매</li> <li>- 주별 경매제를 도입하여 우수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이벤트 마련</li> </ul>



#### 4) 부대공간

##### (1) 역할

- 부대기능은 도예촌의 외부환경의 질과 방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로서 공공 및 관리기능의 역할을 한다.

##### (2) 도입가능시설

- 부대공간에 도입가능한 시설에는 진입로, 주차장, 안내시스템, 도예촌 관리사무소 등이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진입로	- 도예촌으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 및 경관 보행 접근로
주차장	- 단체 및 개별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주차시설 확충
안내시스템 및 보행안전가로시설물	- 도예촌 이미지를 반영한 가로안내시스템 및 전자안내시스템 구축 - 보행자를 위한 가로 안전대와 함께 보행자유도형 조명 검 용 볼라드,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 설치
도예촌 관리사무소	- 도예촌 주차장과 연계하여 도예촌의 외부환경 관리운영을 담당

## 4.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설정

### 1) 도입시설

- 도입시설의 설정은 도예촌 이용자 계층 및 기능에 따른 공간 분석에 따른 도입시설과 주민들의 계룡산 도예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교육·체험, 공원·휴게, 전시·판매, 부대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별 도입시설을 설정하였다.
- 시설별 규모산정은 최대시 이용자수 내에서 시설별로 분배하여 산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여 면적을 조정하였으며, 시설별 규모는 다음표와 같다.

[표-10] 계룡산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산정

구분	도 입 시 설	시설별 최대시 이용자수	단위규모 (㎡/인)	시설규모		비고
				㎡	평	
교육 체험	· 도예 교육관	200	10	2,000	605	
	· 도자연연구소	70	30	2,100	635	
	· 실험공방/작업장	100	20	2,000	605	
공원 휴게	· 도예마당/이벤트광장	120	30	3,600	1,089	
	· 도예조각공원	80	20	1,600	484	
전시 판매	· 도예전시관	100	20	2,000	605	
	· 야외 전시장	80	30	2,400	726	
	· 판매장/기념품매장	50	20	1,000	303	
	· 도공의 집	120	20	2,400	726	
부대	· 주차장(대형)	10	50	500	151	
	(소형)	150	40	6,000	1,815	
	· 야외 작업장	40	20	800	242	
	· 관리사무소	5	20	100	30	
합 계		1,125		26,500	8,016	

## 2) 공간별 프로그램

### (1) 교육·체험공간

- 도예촌에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개별 공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을 교육·체험행사로 나누고 교과시간표를 1일, 1박2일 코스로 정규화하여 체계적 도예교육 실시 및 도예문화를 보급한다.

#### ● 교육세부내용

- 교육행사는 성격상 시범, 학술, 참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체험행사의 대상에 따라 학습프로그램<sup>3)</sup>을 운영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교육 행사	• 도자예술작품 제작 및 시범	시 범
	• 도자예술진흥을 위한 work-shop	학 술
	• 철화분청사기의 역사성 정립 및 제작기법 교육	학 술
	• 도자예술 및 야외소성굽기	참여 행사
체험 행사	• 도자기 체험 교실	일 반 인
	• 전통 물레 교실	일반, 학생
	• 철화로 글,그림 그리기	일 반 인
	• 흙 높이쌓기 대회	일 반 인

#### ● 교과 시간표

##### - 1일 현장 체험 교과 과정

구 분	내 용	대 상 인 원	지 도 강 사
09:00~09:50	등록 및 교육안내	20명×10곳= 200명(동시)	주강사외 4명
10:00~11:50	한국공예이론	"	"
12:00~12:50	중 식	"	"
13:00~15:50	도예 실기	"	주강사 외20명
16:00~16:50	평 가	"	"
17:00~	수료 및 설문조사	"	"

3) 기타 세계 도자 엑스포를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하며,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 행사를 발굴하여 개발한다.

- 1박 2일 (도예 camp) 도예체험 교과 과정

[ 1일차 ]

구 분	교육 내용	기 자 재	주 관	비 고
야영지도착	인원 확인 명단 접수	교육자명단 일정서교부	전 체	전체인원 1회:100명
야영준비	배정및숙지		야영담당자	
중 식				
공방이동				
입 촌 식	환영 인사 분반 소개	보조강사배정 및 확인	주 강 사	분반인원 25명×4반
이론교육	도자사개론 전통 공예	교육 교재	주 강 사	
시 범	흙받기시범 물레 시범	점토,물레	주강사외4명	전체참여요
기초과정	명상음악 말아올리기	음악교재 손물레타령	”	”
야영지이동			야영담당자	
석 식				
대운동장				정비,휴식
문화행사	캠프화이어 풍물 놀이	목 재 풍물단	행사담당자	전체 참여
종 료	야영지 이동		담 당 자	

[ 2일차 ]

구 분	교육 내용	기 자 재	주 관	비 고
기 상	• 세면/조식	급수 시설		
전체집합	• 인원 확인	확성기, 명단	주 강 사	
본 과 정	• 명상 음악	음악 교재	주강사 외20	전체 인원
”	• 말아올리기 기법	점토,도구칼,물통	”	”
중 식				
노천소성	• 야외소성과정 = 노천소성	초벌 기물 소성 도구		
청소/평가	• 교육장 정리 • 우수장인선발 및 표창	수료장		
퇴 촌 식	• 인사및증정			전체 인원

주 : 도예 캠프는 신청자에 한하며 일정 기간을 통해 기수별로 한다.

## (2) 공원 · 휴게공간

- 도예마당과 이벤트광장에는 전통마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을 조성하며 충남 · 대전지역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축제의 장을 조성한다.<sup>4)</sup>
- 특히, 사계절 야외 결혼식, 음악회, 영화촬영, 방송 등을 유치하여 장소마케팅 효과를 도모한다.

[표-15]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 (예시)

계절	월별	기획행사	전시	교육
봄	3월	도자기 축제	철화 분청사기전	춘계 도예 캠프
	4월	야생화 꽃축제	사진촬영전	
	5월	야외영화제	도자 민구전	
여름	6월	도자기 할인판매	분청사기전	하계 도예 캠프
	7월	여름음악축제	하계 캠프	
	8월	향토풍물제	향토 유물전	
가을	9월	도자기 할인판매	자기전	추계 도예 학교
	10월	단풍제	사진 촬영전	
	11월	학술세미나	도자 산업전	
겨울	12월	송년제	도자 예술전	동계 도예 학교
	1월	눈축제	사진 촬영전	
	2월	신년제	-	

## (3) 전시 · 판매공간

- 도예의 전시는 단순히 도자기의 전시가 아닌 도예 교육, 홍보, 판매 등 도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도예문화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전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접근과 판매공간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 도예촌의 전시는 장소에 따라 실내 · 외 전시로 구성하며, 기능에 따라 보존, 기획, 상설 등으로 구성하고, 목적에 따라 교육 및 견학을 위한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로 구성한다.

4) 전인수, 월암 도자 예술촌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5.2. p55

- 작품 전시는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에 맞추어 계절별, 월별로 구성하고, 다른 지역 도예인들과의 교류전시 등을 추진하여, 도자문화의 장으로 조성한다.

전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전</li> <li>• 국제 도자기 작품 전시회 (일본, 중국, 유럽 등)</li> <li>• 예술성이 높은 도자 공예품 전시 · 판매</li> <li>• 계룡 도자의 소리</li> <li>• 계룡의 울림(사물놀이)</li> </ul>	전시행사장
-------	---	-------

#### (4) 부대시설공간

- 도예촌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 부대시설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표적인 부대시설인 진입로, 주차장, 도예촌 내부로의 접근로인 도예인의 길 등은 유기적 연계체계가 확보되도록 한다.
- 도예인의 길 주변에는 철화 분청 도예의 역사 및 도자 조각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걸으면서 도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주차공간 주변에는 도예촌 안내센터 및 관리사무소를 두어 방문객 및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주변에는 배기가스 등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생태환경이 보존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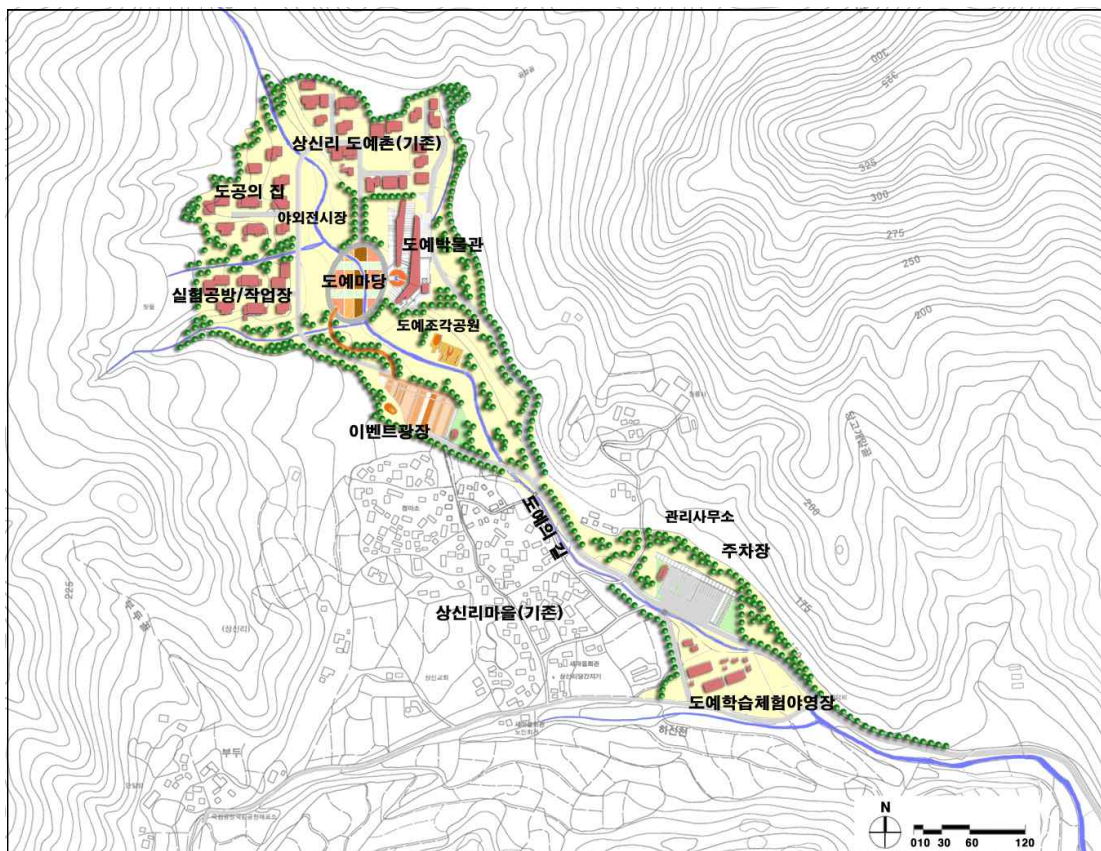


## 5. 도예촌 조성 기본구상

### 1) 조성 기본구상도

- 현 상신리 도예촌이 계룡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은 산지구릉지형에 순응한 자연 친화적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주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도예마을을 정비하고, 새롭고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은 정비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공간별 배치구상으로 진입부에는 주차장과 도예의 길을 조성하여 도예촌으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도예의 길 주변에는 이벤트광장, 도예마당, 조각공원을 두고 박물관, 도공의 집을 두어 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현재 공주학생야영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은 야영장과 함께 도예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체험공간으로의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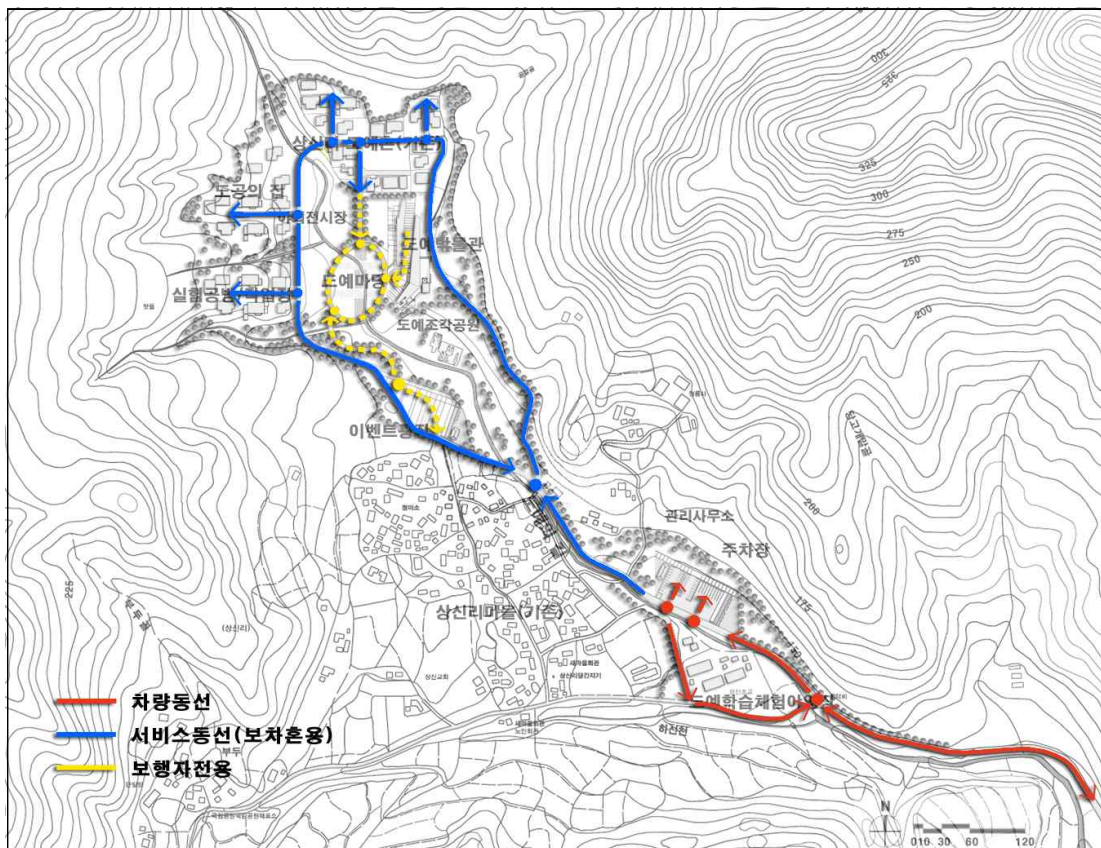
[그림-2] 기본 구상도



## 2) 교통동선구상

- 도예촌으로의 진입은 차량으로 하되 주차장에서 도예촌으로의 진입은 보행진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예촌 관리·유지 서비스를 위한 차량만을 시간제로 허용한다.
- 차량의 주차는 도예학습야영체험장 후면에 조성계획인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체험장 주변에 순환도로를 정비하여 일방순환 통행하여 계획한다.
- 도예촌내의 보행동선은 주차장에서 이벤트광장, 도예마당을 거쳐 도예촌 내부의 환상보행도로망을 구축하며, 도로면의 포장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 재료인 마사토, 자갈, 소형 블록, 목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한다.
- 또한, 차량동선의 연결 및 보행동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며, 결절부에는 hump를 설치한다.

[그림-3] 교통동선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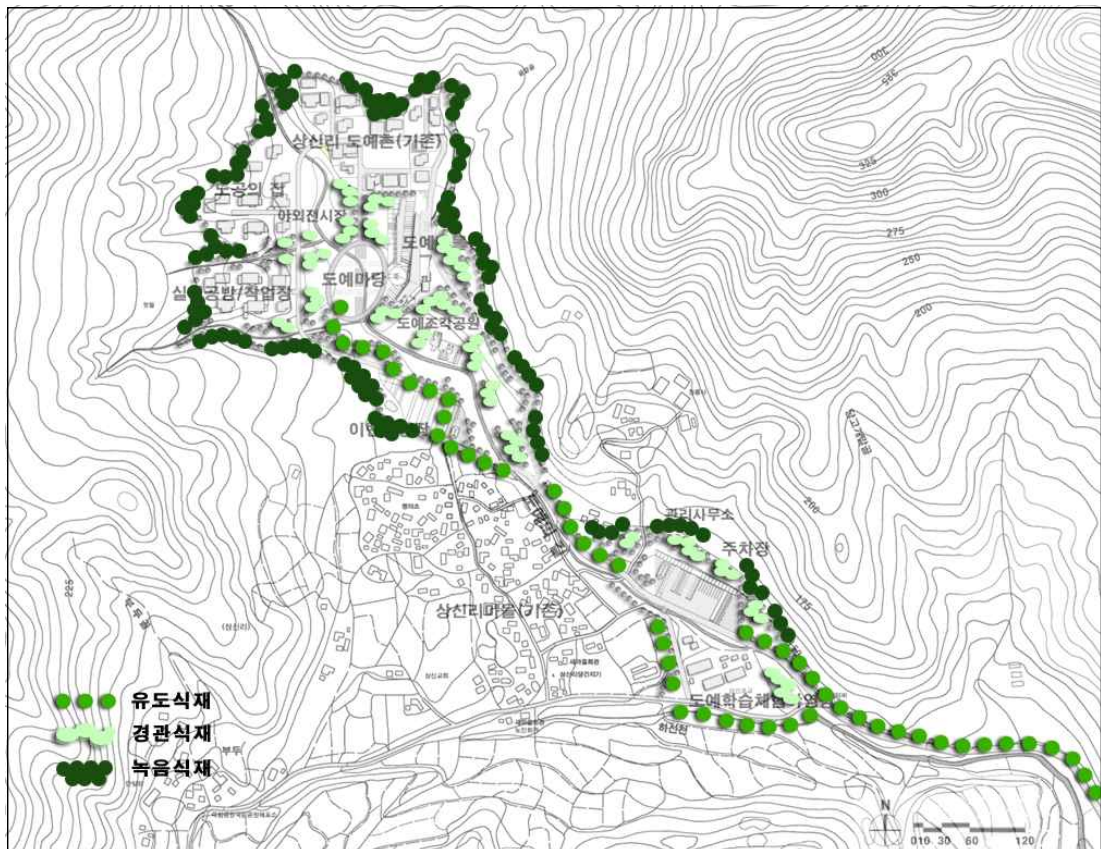




### 3) 녹지체계구상

- 주변 계룡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의 보존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조경 및 식재계획을 한다.
- 수종의 선정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향토수종, 구입 및 이식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식재 방법으로 패턴은 기하학적인 식재를 지양하고 자연풍경식 식재와 함께 기능적으로는 녹음, 경관, 유도, 촛점식재 등을 한다.
- 시설물 주변에는 녹음수로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 시설마다 독특하고 특징적인 화목류 및 경관수로 녹지대를 조성한다. 도로 및 주차장은 공해 및 병충해에 강한 낙엽활엽수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 대상지 내에 가로지르고 흐르는 실개천은 산책, 휴식, 교육, 문화의 장소로서 생물서식공간임을 고려하여 주변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그림-4] 녹지체계 구상도



## 제3절 주변자원과 연계방안

### 1. 주변자원 연계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계룡산 도예촌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수요는 대전·충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주변지역자원으로 충남공주지역 및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주시의 경우 시티투어, 온천단지, 백제문화재, 철화 분청사기 등 4개 분야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공주시 100배 보기에 문화/성지/휴식부문에 계룡산 도예촌을 알리고 있다.
- 그러나, 시티투어코스에 관광코스에 제외되어 있는 점과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계룡산 도예촌을 방문하는 것이 장애요소이다.
- 대전의 관광코스는 한나절형 5코스, 1일형 7코스, 2일형 3코스<sup>5)</sup> 등으로 개발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계룡산 상신리 도예촌을 경유하는 코스는 1일형에 1코스에 지나지 않는다. 대상지의 위치가 대전에서 30분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예촌의 조성과 함께 관광코스로서의 적극적 개발이 요망된다.

[표-17] 공주시 관광 코스

시티투어	공주관광안내소 → 공주관광안내센터(영상홍보관) → 무령왕릉 → 고평리국립공주박물관(공사당, 선화당) → 중식(공산성인근) → 국립공주박물관 → 우금치전적지 → 임립미술관 → 공주민속극박물관(전통놀이체험) → 웅진교육박물관 → 공산성 →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 백제의상체험
	공주관광안내소 → 공주관광안내센터(영상홍보관) →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 중식(공산성인근) → 충남산림박물관 → 박동진판소리전수관(판소리체험) → 웅진교육박물관 →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 백제의상체험

5) <http://www.metro.daejeon.kr> 참조

[표-18] 대전광역시 관광코스

한나절형	① 국립중앙과학관 → 화폐박물관	④ EXPO과학공원 → 선사유적지
	② 우암사적공원 → 동춘당	⑤ 뿌리공원 → 장수마을
	③ 백화점 → 전문상가	
1일형	국립중앙과학관 → 수운교 → 우암사적공원 → 대청댐	
	뿌리공원 → 창계송절사 → 신채호생가 → 보문산	
	화폐박물관 → EXPO과학공원 → 연구소 →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 동학사 → <b>상신도에촌</b> → 갑사	
	동학사 → 공주박물관 → 공산성 → 경기장	
	부여박물관 → 고란사 → 5층석탑 → 능산리고분	
	청주박물관 → 고인쇄박물관 → 문의단지 → 대청댐	
2일형	칠갑산 → 태안국립공원 → 덕산온천 → [2일차] → 수덕사 → 현충사 → 독립기념관	
	칠백의총 → 무주구천동 → 무주리조트 → [2일차] → 금산인삼센터 → 만인산 → 뿌리공원	
	대청댐 → 문의문화대단지 → 속리산 → [2일차] → 속리산 → 세천호반도로 → 엑스포과학공원	

[표-19] 대전광역시 요일별 시티투어코스

요일	시티 투어 코스
월	월평정수장(송촌) → EXPO과학공원(동춘당, 남간정사) → 표준과학연구원(수운교) → 수운교(EXPO과학공원)
화	정부대전청사 → 중앙과학관 → KAIST(기상청) → 우암사적공원
수	국립현충원 → EXPO과학공원 → 전자통신연구원(지질박물관) → 대청댐
목	월드컵경기장(시청사) → 중앙과학관 → 항공우주연구원(교육과학연구원) → 뿌리공원
금	<b>상신도에촌</b> (계룡대/예약시) → 동학사 → 시민천문대(화폐박물관) → 지질박물관
토	정부대전청사 → 동물원 → 뿌리공원
일	국립현충원 → 동물원 → 뿌리공원

[표-20] 유성구 테마별 관광코스

가족과 함께	• 구즉목마을 → 꿈돌이랜드 → 유성온천 → 수통골
연인과 함께	• 계룡산국립공원 → 유성온천 → 엑스포 자동차 극장 → 대전동물원
부부 코스	• 대덕연구단지CC → 숯골냉면 → 유성온천 → 유성5일장 → 유성CC
견학 코스	• 엑스포과학공원 → 교육과학연구원 → 유성온천 → 국립중앙과학관
탐구 코스	• 한밭교육박물관 → 지질박물관 → 대전시민천문대 → 유성온천
문화 코스	• 화폐박물관 → 유성온천 → 대전시립미술관 → 계룡산 도자예술촌
명상 코스	• 독립기념관 → 유성온천 → 국립대전현충원
계룡산 코스	( 3시간, 4시간, 5시간 30분, 6시간 코스로 나누어 설정)
역사 기행	• 우암사적공원 → 유성온천 → 둔산선사유적지 → 뿌리공원

## 2) 개선방안

### (1) 기존 테마 관광코스의 개선

- 현재 도예촌은 일부 촌의 교통공공시설을 확충한다면 경유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공주시 테마관광코스에 계룡산도예촌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광수요측면에서 계룡산 도예촌은 충남공주보다는 대전권에 비중이 높으며, 계룡산 국립공원, 온천 등과 연계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대전의 한나절형 관광에 동학사→계룡산 도예촌이 연계된 코스 및 1일형 현재 동학사→공주박물관→공산성→경기장의 코스에 계룡산 도예촌을 포함하여 동학사→계룡산도예촌→공주박물관→공산성→경기장을 경유하는 코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도예촌을 중심으로 한 관광 루트의 기획

- 계룡산 도예촌은 철화분청사기, 도예, 작가촌 등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테마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정비의 미흡으로 계룡산, 대전, 공주지역의 경유 관광지로서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예촌에는 주요 테마와 함께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관광 루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 (3) 관광 셔틀버스의 운행

- 도예촌으로의 접근은 승용차, 하루 6회 운행의 버스, 주1회 대전 시티투어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만 대상지로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계룡산 도예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및 관광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기적 셔틀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



## 제4절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방안

### 1. 사업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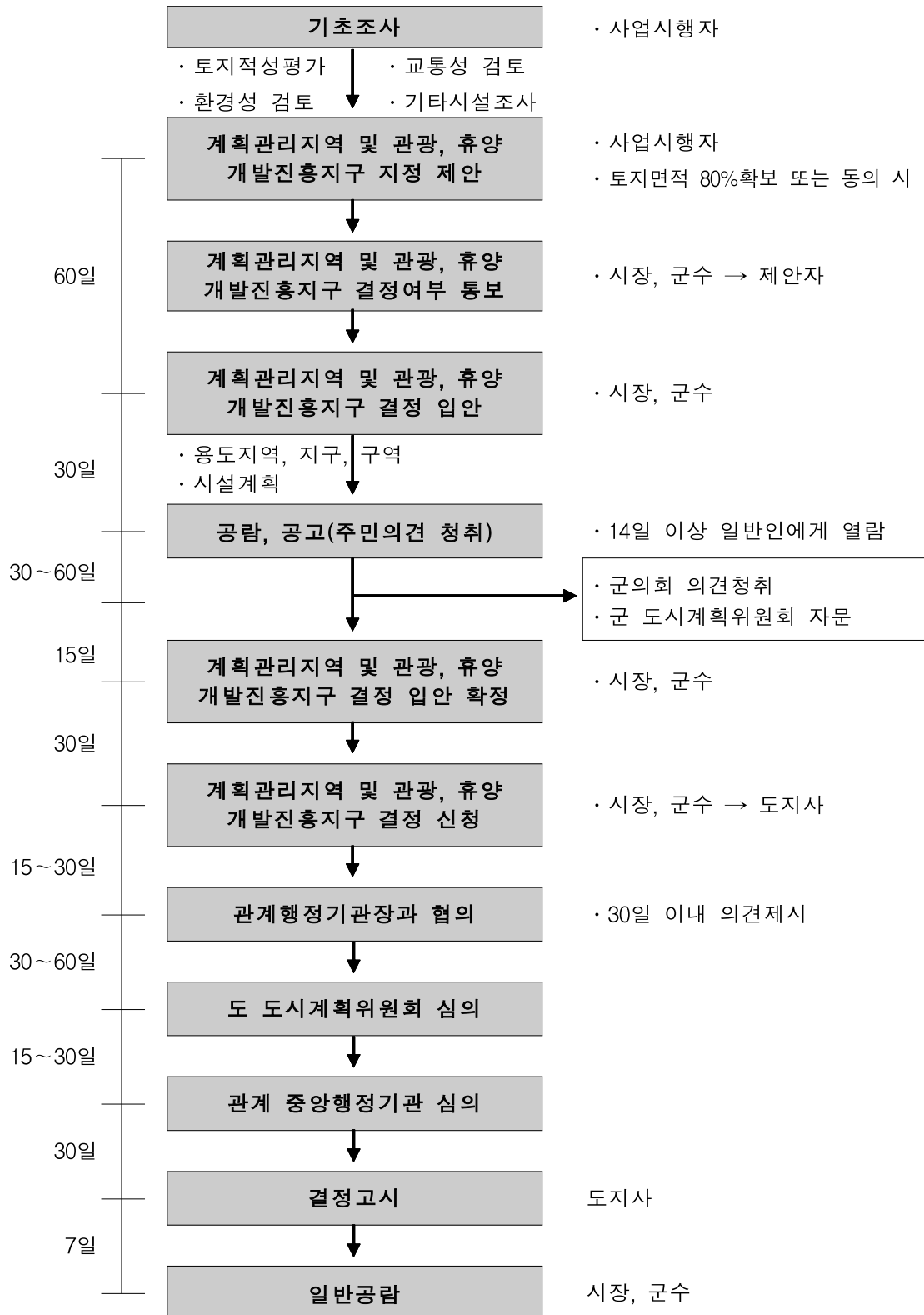
#### 1) 사업추진

- 21세기 문화는 단순히 인문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정책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sup>6)</sup>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의 사업추진은 지역개발 및 발전에 있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지역의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 내생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개발, 경제적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개발을 위해 본 과제 이후에 좀더 종합적 개발이 필요하며, 종합개발계획 및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도예촌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방식은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하향식 사업추진보다는 상향식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생적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업주체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된 민관협력체 또는 해당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관협력체의 구성은 도예가, 지역주민, 계획가 및 행정가 등으로 하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투자재원은 1단계로 정부지원에 의한 인프라구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국토계획상 대상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6)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만들기』 관련 토론회 자료, 2003.3.6

[표-21]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도



※ 소요예정일은 협의기관의 보완이 없을 경우 약 352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자원조달

- 도예촌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도예촌 조성에 기초가 되는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과 연관하여 공공재원을 확보하고, 관광 및 수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재원을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1) 중앙정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 도예촌 개발내용 성격상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여 중앙부처의 다양한 시책과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재원확보를 추진하며,
- 이를 위한 합리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부처의 설득과 협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 도예촌 조성사업 중 수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계획하여 민간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추진이 필요하다.
- 또한 민간재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대상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 공공투자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권을 부여, 민간자본 유치 및 절차와 방법,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 (3) 외부자원의 발굴과 동원

- 외부자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장기적·단계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선정과 연관하여 추진한다.

### 3) 투자계획

- 투자계획은 단기, 중기, 단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지구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 구축, 정주환경을 정비, 교육연구시설 확충, 관광체험 시설도입 등 단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특히, 관광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의해 초기의 과도한 투자를 지양하며, 10개년 등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 2. 관리운영

- 도예촌의 관리운영은 해당자치단체의 행정적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마을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가칭 “도예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으로써 자족적 운영기반을 확보한다.
- “도예촌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예 판매, 홍보 및 이벤트를 기획하고 전시관, 판매장, 전통찻집, 부대편익시설 등을 운영하여 수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마을운영기금을 조성한다.
- 기금은 일차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용도에만 지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기적 감사를 실시한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제1절 결론

-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운영에 관한 연구는 충청남도 민선 도정운영 프로그램의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수행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특징과 대상지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내외 도예촌 조성사례를 검토, GIS분석을 통한 개발가능규모, 도입가능 시설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계룡산 도자문화의 특성과 주변여건 분석을 통한 도예촌 조성 가능성 검토

- 분청사기, 철화기법, 계룡산이라는 요소 검토를 통하여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는 재료, 기법, 문양 등에 있어서 이천, 강진과 함께 분명한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전승,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 그 우수성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이 계룡산 도예문화 관심부족, 제품에 대한 구매력 저하, 생산기반약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일부 도예인들에 의한 도예촌 조성은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도예촌 조성에 있어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의 취약은 도예촌의 가장 큰 약점이다.
- 반면, 자연경관자원 및 관광자원 등의 잠재자원 및 연계가능자원 분석,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도로 등의 기반시설, 미래개발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입지적 여건 분석, 그리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필요한 GIS를 통한 가용지 분석을 통해서 대상지는 계룡산과 철화 분청사기로의 특화된 도예촌 조성은 충분한 개발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2) 국내외 사례 조사·검토를 통한 도입기능, 시설규모, 프로그램 검토

- 국내 이천, 강진지역의 도예촌과 일본의 아리타, 이마리 지역의 도예촌 현황 조사를 통해 계룡산 지역의 도예촌은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일본 및 이천, 강진 도예촌과는 경쟁열위에 있으나, 이천의 조선백자, 강진의 고려청자와는 차별화된 분청사기 또는 철화 분청사기로 특화시킬 경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도시 근교권을 고려한 도시근교공원으로의 조성이 필요하며 도예촌 이용자 수요예측, 계층분석 및 공간분석에 따른 도입 가능한 기능, 시설규모 검토결과 및 계절별 행사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표-22] 계룡산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산정

구분	도 입 시 설	시설규모		비고
		m <sup>2</sup>	평	
교육 체험	· 도예 교육관	2,000	605	
	· 도자연연구소	2,100	635	
	· 실험공방/작업장	2,000	605	
공원 휴게	· 도예마당/이벤트광장	3,600	1,089	
	· 도예조각공원	1,600	484	
전시 판매	· 도예전시관	2,000	605	
	· 야외 전시장	2,400	726	
	· 판매장/기념품매장	1,000	303	
	· 도공의 집	2,400	726	
부대	· 주차장	6,500	1,966	
	· 야외 작업장	800	242	
	· 관리사무소	100	30	

[표-23]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 (예시)

계절	월별	기획행사	전시	교육
봄	3월	도자기 축제	철화 분청사기전	춘계 도예 캠프
	4월	야생화 꽃축제	사진촬영전	
	5월	야외영화제	도자 민구전	
여름	6월	도자기 할인판매	분청사기전	하계 도예 캠프
	7월	여름음악축제	하계 캠프	
	8월	향토풍물제	향토 유물전	
가을	9월	도자기 할인판매	자기전	추계 도예 학교
	10월	단풍제	사진 촬영전	
	11월	학술세미나	도자 산업전	
겨울	12월	송년제	도자 예술전	동계 도예 학교
	1월	눈축제	사진 촬영전	
	2월	신년제	-	

###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향 및 가능성 검토

- 도예촌 조성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재원의 확보로서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공공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하여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기반시설의 설치 후 도예촌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기능 도입과 시설을 계획함으로서 적극적인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정책건의

- 연구결론을 바탕으로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에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예촌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 도예촌 입지예정인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리 일원은 국립공원지역에 근접하여 있으며 아름다운 주변자연환경과 잠재력이 큰 관광자원이 근접하여 있다. 이러한 주변 잠재자원은 도예촌 조성의 강점이자 기회요인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둘째,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 계룡산 국립공원의 인접과 주변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경관 훼손은 지역발전의 발전잠재력을 약화시켜 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셋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 및 민간재원을 적극적 도입
  - 대상지역에 도예촌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에서 도예촌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시설까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정부부처에서 진행중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획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성 사업을 계획하여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넷째, 지역민, 지자체 및 중앙정부, 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쉽에 의한 사업추진
  - 이에, 지역개발의 주요 전제요소는 지역시설의 지속적 유지·관리·활용이다. 도예촌의 조성과 함께 지속적 유지·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이것은 과거에 시행하였던 하향식 사업추진에서 상향식 사업추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자체, 지역민의 공동합의에 의한 추진의 협력이 필요하며, 미래의 도예촌의 만들 것이다.



## - 참고문헌 -

- 대전 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도자기 비교/귀향전 - 한국도기의 특징, 미의식과 한국도자기의 역사』, 1993
-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 매뉴얼』, 1999.12
- 임주환외, 『관광지 개발론』, 백산출판사, 2001년 1월 20일
- 가미지카 요시쿠니, 역자 박석희 외, 『미래도시를 여는 테마파크(관광도서시리즈 30)』, 일신사, 1998년 8월 31일
- 이토마사미, 역자 박석희 외, 『테마파크의 비밀』, 일신사, 1995년 8월 1일
- 강무원 지음, 『이사오고 싶은 도시만들기』, 한국능률협회, 1999년 11월 30일
- 이재황,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재료 연구 - 주변재료의 채굴과 실험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동해물과백두산이, 1997년 5월 28일
- 유흥준·윤용이, “알기 쉬운 한국도자사”, 경기도·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8.10
- 박민기, “이천 도예문화공원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9.5
- 전인수, “월암 도자 예술촌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9.5
- 송희정, “도시근교 전원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계룡산 도예촌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1.6
- 이재황, 최석원, 채상정, 서만철, “철화분청사기 철화안료로 사용한 석간주 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2003.2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제49회 백제문화제 기념 학술심포지움 “계룡산의 도자문화”, 2003.10.9
-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8.10
- 산업자원부, “도자기 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2002.2
- 삼성경제연구소, “이천 도자기 클러스터의 현황과 발전전략”, 2002.12

-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세계도자기엑스포2001」행사 이후 국내 · 외 민간기업 유치구상”, 2000.11
- 공주군, “제1차 군건설종합계획(1992~2001)”, 1999.12
- 공주시 · 충남발전연구원, “새천년 공주시 장기발전비전”, 1999.12
- 이현식, 김은경, “강화군 화문석 문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송해면 양오리를 중심으로 -”, 인천발전연구원, 1999.12
- 손상락, “지역발전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경남발전연구원
- 월간 환경과 조경,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현상공모 당선작”, 2002. 7, p90-93
- 공간, “다름슈타트의 예술인촌”, 1992.10
- 월간 공예, “카펜스타인의 도자기 축제, 1990.1
- 월간 공예, “전통공예의 계승과 현대 공예의 방향”, 1989.3
- 월간 공예, “한국 도자공방의 변천 과정”, 1989.5
- 월간 공예, “공동 아틀리에”, 1985
- 공간, “안동지레마을 수물지역 복원계획 -지레창작예술센터, 지레예술촌-”, 1986.6

# 부록-1 도자역사 및 철화분청사기에 대한 고찰

## 제 1 절 도자기의 개요

### 1. 도자기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 토기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기원전 5000~6000년경 신석기 시대 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사 시대의 토기 모양은 둥글거나 뽕족한 장방형이 기본형으로, 낙랑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토기가 생활화되기 시작한다.
- 특히, 9세기 전반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청자 제조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토기 문화권을 벗어나 자기 문화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10세기~13세기)부터 만들기 시작한 청자는 그 화려함과 세련됨으로 수많은 걸작을 남겼으며, "고려청자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독창적인 청자를 생산하게 된다.
- 그러나, 몽고의 침입에 의한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며 상감기법을 비롯한 비취색과 그 고유한 선은 점차 실용성과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간다.
-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로 들어서면서 청자의 곡선은 단조로워지고 기벽이 두껍고 투박하게 변화하며, 문양 역시 단순화되면서 상감문 대신 기능성적 인화문으로 변하고, 회청색의 몸체에 백토를 바르거나 문양을 굵어내어 산화철로 그림을 그린 분청사기가 쓰이게 된다.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BC50C	BC10C	BC4C	AD5C	679년	936년	1392년
						1592년
						1910년
빛살무늬 토기	민무늬토기 홍도, 흑도	적색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와질토기(가야, 신라토기)	회유 도기	청 자	분 청 사 기	자 기
				웅	백	
토기(700-1000도)		도기(1000-1200도)		석기(1200-1300도)		자기(1300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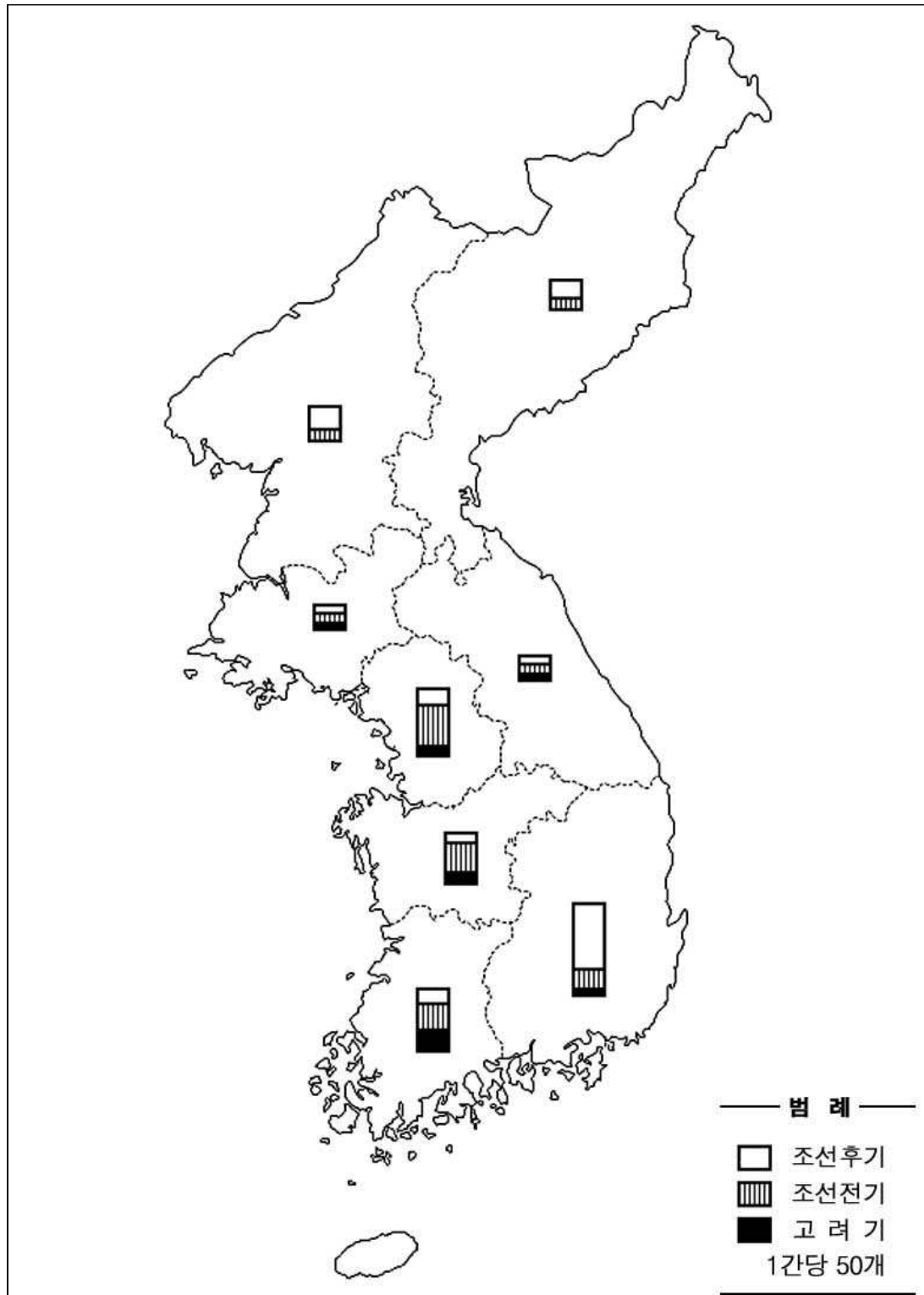
- 17세기 이후부터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발달한 순백자가 성행하였는데, 아름다운 순백색의 자기에서 다양한 문양과 대담한 변형을 이루어 회화적이면서 유머와 위트가 깃든 세련미를 갖춘 공예 예술로 발전한다.
- 그러나, 마지막 관요인 광주 분원이 민요로 뒀에 따라 쇠퇴한 조선백자는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그나마 맥이 끊겨 버렸고, 일제침략 이후 50년대 말까지 약 50여년 동안의 한국도예의 공백기를 가진다.
- 해방이 되고 6·25를 겪는 동안 크게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도자기 공업은 60년대를 시발점으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며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며,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 2. 도요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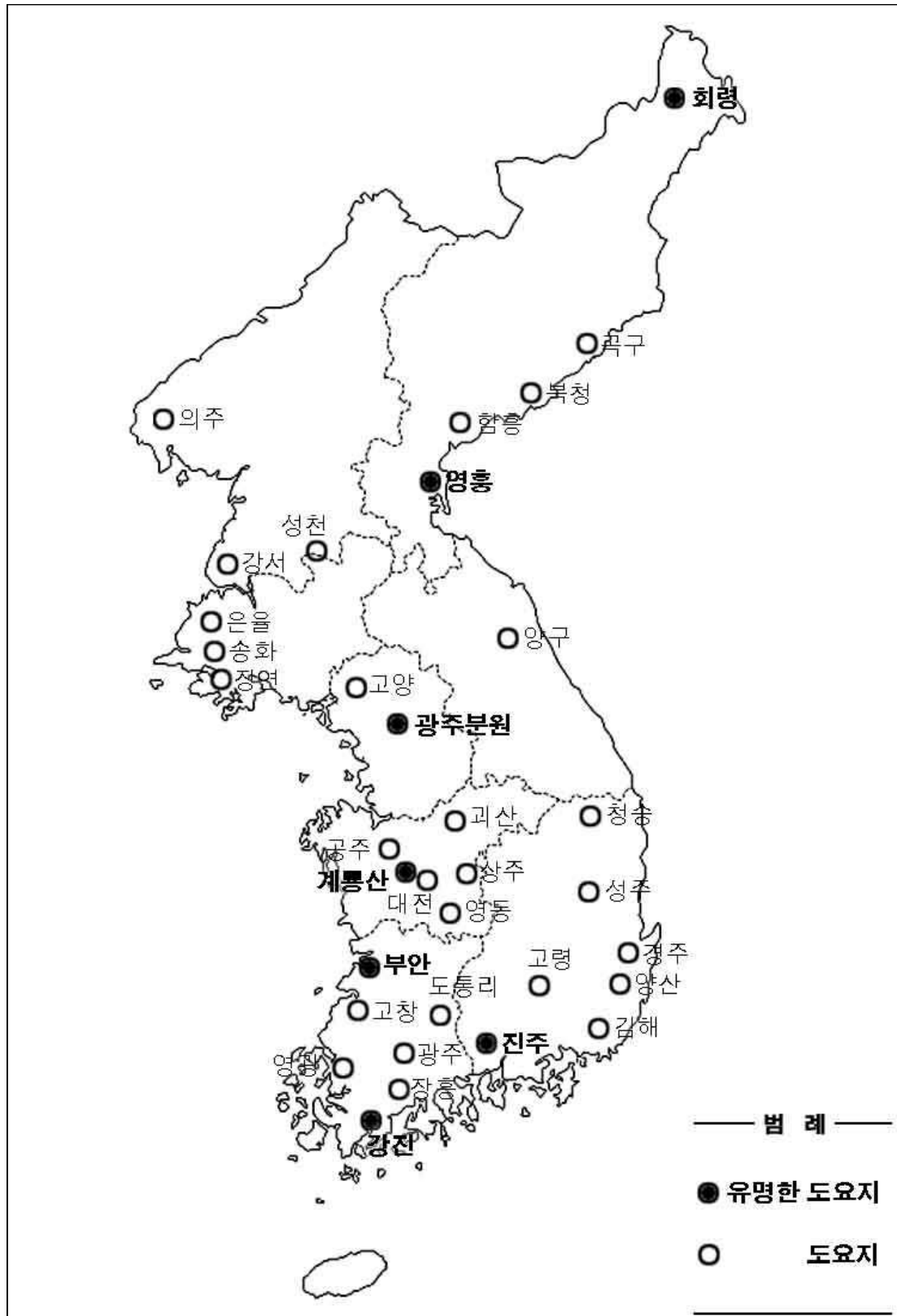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에 잔존하고 있는 도요지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힘들으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도요지는 57개소, 와요지는 7개소가 있다.
- 미 등록된 도요지를 포함한 분포현황을 보면 충청, 전라지역에는 고려, 이조전·후기시대별 요지가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경상도지역에는 이조후기의 도요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185개소에서 분청사기를 굽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39개의 자기소에서 백자를 구웠다고 한다.
- 이중, 전국의 대표적인 유명 도요지로서는 회령, 영흥, 광주, 계룡산, 부안, 진주, 강진 등 총7개소가 꼽히고 있다.
- 충청남도의 도요는 15개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지는 41개소이고, 도요수는 37개였다고 하며,<sup>7)</sup> 입지는 차령산맥의 계룡산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기를 생산하는 주원료인 양질의 도토를 많이 구할 수 있는 여건이기 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7) 김상수, 조선후기 도자기업의 입지연구 -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 1989.12, pp. 69-71

● 시대별 요지 분포현황



● 전국 주요 도요지 분포현황



### 3. 한국 현대 도예가의 활동 상황

- 고려 이후 천년에 이르는 한국 도자기의 세계는 현대에 이르러 크게 두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져 각각 그 발전의 길을 가고 있음.
- 하나는 잃어져 가고 있는 전통 도자기를 고수하는 전승 도예가들에 의해 이어지는 길이며 또 하나는 1950년대 이후 대학 교육을 통해 도예를 몸에 익히고 전통적인 도자 개념에 근본을 두되 그것에서부터 변화와 참신한 조형을 꾀하려는 현대 도예가들에 의한 길이고 이러한 경향 또한 새로운 동향에 편승하여 그 길이 다시 분리되어 가고 있음
- 60년대를 넘기면서 여러 미술 분야에 있어 급격히 대두된 새로운 현상, 즉 장르 개념의 타파에 의해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탈피해 나가는 추세가 도예의 영역에서 나오게 되었음
- 충남·대전의 경우, 대학교수 및 강사를 비롯하여, 대학에서 정기적인 도예교육을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공방운영능력을 가진 중견 및 청년작가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50여명이 있으며, 도예를 포함한 공예분야의 디자인 전시 횟수는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 제 2 절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 철화 자기의 명칭과 배경

- 철분( $\text{Fe}_2\text{O}_3$ )을 주 안료 재료로서 사용한 제작 기법은 이미 역사이전시대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철재 사용은 신석기시대 말부터 초기 철기시대까지 사용되었던 홍도라 불리우는 적색 경질 토기가 가장 오래된 유일의 철재 기법이다.
- 그 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철재 사용 흔적이 없고 고려시대 중기 철채가 청자의 문양장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철화문 청자, 철화 분청자기(鐵畫 粉粧磁器)<sup>8)</sup>가 제작되었다. 철재는 1050~1150년대의 순청자 시대에 이어 청자가 가장 발달하였던 1150~1250년대의 상감청자시대에 분장토의 사용과 함께 쓰기 시작했다.<sup>9)</sup>
- 고려말기에 회청자기와 함께 새로이 나타난 분청사기는 청자의 기법을 그대로 계승한 인화상감으로서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조선조로 들어서게 되자 철화 자기의 중심지가 다시 그 방향을 북으로 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 일대<sup>10)</sup>로 옮겨지게 되면서 새롭게 다양한 장식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가운데 철화 기법 역시 고려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소멸된 분청사기는 새로 수습된 도자기인 백자에 완전히 그 주류를 넘기게 된다.
- 그러나, 분청사기의 철화 기법은 다른 분청사기의 기법과는 달리 백자 소성에까지 사용되어 이미 계룡산에서 이루어 놓은 철재의 미를 우수하게 실용시키고 있다.

8) 명칭은 제작 기법이나 제작 시기에 따라 학자나 저자 나름대로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9) 고려 24대 원종, 25대 충렬황에 이르러 가장 유행하게 되며, 이러한 철화문은 당시의 환원 소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부분 청자 유약의 밑에서 검게 붓길 자국대로 발색이 되고 있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허 요지의 경우 초기의 세필철화문청자의 도편 뿐만 아니라, 변형된 기법의 철채 도편도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초기의 철화문 기법이 상감 청자보다 앞서 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10) 계룡산 일대는 경기도 광주군 분원요(1468~1883)와 함께 조선조 도자기 생산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 철화 백자는 계룡산 철재와는 달리 전문적인 화공들의 그림으로서, 지방 민요의 철화문은 대담한 생략형의 그림이 많으며 호랑이와 같은 민화풍과 함께 용, 봉황 등의 상념적인 동물의 그림도 나타난다.
- 그러나, 조선조 퇴락으로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의 관요가 1883년 폐지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조선조 도자 소성은 종말을 가져왔다.

## 2. 철화 분청사기의 역사적 고찰

### 1) 편년에 의한 분류

- 신라 34대 성덕 23년(갑자년 724년), 동학사는 혜의스님에 의해 청량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어 조선 초기 동학사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 그러나, 계룡산 가마터의 개요시기가 고려 말기부터였다고 보면 14세기 이전에 개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시대 1424~1432년 사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공주 동쪽 동학동<sup>11)</sup>에서 중품의 자기와 구이동에서 하품의 자기가 생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동학사 사적기」에서는 개요시기를 15세기 전반으로 추정하는데 세조가 이 절에 행차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주이십리=왕복40리’의 산림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러한 것이 동학사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으며 계룡산 요가 조선 초기 조선요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사장요라고 하였다.<sup>12)</sup>
- 철화분청사기의 편년이 가능한 기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동학동은 동학사가 있는 학봉리를 지칭할 수 있으나 구이동은 앞으로 찾아 발굴하여야 할 과제이다.

12)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가 동학사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사장요라고 하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명문으로 보면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철화 분청사기의 편년은 정확히 기재된 기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청자 철화 절지 조충문병 (靑磁 鐵畫 折枝 鳥蟲文瓶)
- 분청상감 의성고명 (粉靑象嵌 義成庫銘)
- 분청 인화 철화 예보명 접시편 (粉靑 印花 鐵畫 禮寶銘 접시편)
- 분청 귀얄 철화 성화 이십삼년명 묘지편 (粉靑 귀얄 鐵畫 成化 二十三年銘 墓誌片)
- 분청 귀얄 철화 가정십오년명 묘지편 (粉靑 귀얄 鐵畫 嘉靖十五年銘 墓誌片)

## 2) 문양상의 분류

- 계룡산 가마에서는 특정 계급을 위한 도자기가 아닌 일반 대중이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활품을 제작하였다.
- 다량의 생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성형, 문양 등은 절차가 많이 생략되었으며, 사장요라 칭할 정도로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 특히, 귀얄문 위에 그려진 철화문은 독특한 개성을 지닌다.

### ① 어문(魚紋)

- 예부터 일상용기에 나타나는 물고기는 다산과 번식을 뜻하였다. 특히, 강열한 인상과 회화적인 감각을 풍기는 것이 철화문의 특징인데 흑갈색의 굵고 가는 선으로 선명하고 대담하며 활달하게 그려졌다.
- 과장된 지느러미와 간결하게 표현된 비늘, 전체적으로 예리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에서 특색을 볼 수 있다.

### ② 연화문(蓮花文)

- 「蓮命人淡」 연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박하게 한다고 하며 불가에서는 특히 존중하여 장수, 건강, 명예, 불사, 행운, 군자를 상징하였다.
- 연화문은 조선조(15~16세기경)의 분청사기<sup>13)</sup>에서 나타나는데 철화청자에서의 도식적인 표현에서 많이 탈피하여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성배열이 자유분방하다.

13) 그 형식은 대개 14세기경의 고려시대 말기의 청자에서 그 기법을 이어 받았다.

### 3) 특성상의 분류

- 기형은 병의 경우에 가운데 동체가 풍만한 것이 많아서 무게 중심이 약간 위로 올라갔다. 백자의 경우 15~16세기에는 병의 아래부위가 풍만하며 16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동체가 풍만해져서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간다.
- 이러한 병의 형태에서 철화문 병과 훨씬 후(後)대인 17세기 백자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즉, 형태면에서 조형적인 감각이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물에 분장토를 전면으로 칠하지 않고 거의 전과 굽을 남겨 놓는데 이것은 실용품으로서 사용되었을 때 화도가 높은 분장토가 소결되지 않아 부딪히면 유약과 함께 잘 떨어지므로 결점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분장토를 칠할 때 바른 자세에서 한 번 칠하고 밑면의 분칠은 다시 얹어놓고 또 한번의 작업과정을 함으로서 많은 양의 작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굽과 그 언저리 및 입구의 선 등을 남겨 놓으므로써 분장토와 태토와의 대조를 이루며 우굴어진 기물이 많은 양 출토되는데 태토에 비해 소성시 불의 화도가 높기 때문이다.
- 실제로 봉통의 벽이 유리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230℃ 이상의 온도로 소성했을 것이다.

■ 집 필 자 ■

박 철 희(朴哲熙)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경학 석사(도시설계 전공)

기본연구과제 2003-02

##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에 관한 연구

---

발 행 자 : 오 제 직(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발 행 일 : 2003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5-3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번지

전화 : (042)824-7914

팩스 : (042)824-7817

인 쇄 처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24-9 93910

<비 매 품>